

V3.7 (20180915)

가장 보통의 연애

제작 영화사집 각본/감독 김한결

본 시나리오의 저작권은 (주)영화사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by Zip Cinema Co. Ltd. All rights reserved. Unauthorized duplication & copying is prohibited.

NEW 한국영화팀

|| 등장인물

재훈(남, 30대 중반): 홍보회사 '비주얼라이징'의 총괄팀장. 회사 살림을 도맡아하고 있다.

선영(여, 30대 중반): 대형광고회사를 다니다가 사직. 비주얼라이징 기획팀으로 이직해온다.

병철(남, 30대 중반): 비주얼라이징 제작팀 대리. 동안을 무기로 나이차 많이 나는 열애 중.

관수(남, 30대 후반): 비주얼라이징 대표. 일찍 결혼했고, 처가 도움으로 비주얼라이징을 차렸다.

미영(여, 30대 후반): 비주얼라이징 기획팀 과장. 회사의 숨은 살림꾼. 재훈, 관수와 대학 동문이다.

경은(여, 30대 초반): 비주얼라이징 제작팀 대리.

윤주(여, 20대): 비주얼라이징 제작팀 사원.

주희(여, 30대 중반): 선영의 절친. 고교시절부터 단짝으로 서로의 연애사를 속속들이 아는 사이.

동화(남, 30대): 선영의 전 남친.

현성(남, 30대): 선영의 전전 남친.

수정(여, 30대): 재훈의 전 여친.

그 외, 강기사(남, 30대), 도윤(남, 20대) 등 비주얼라이징 식구들.

그리고, 재훈의 동창인 정수(남, 30대 중반).

S#1. 호프집 / 밤

시끌벅직한 호프 집 풍경.

홍보회사 '비주얼라이징' 의 회식 자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뒤늦게 나타난 관수를 보고 반응한 병철이 분위기 몰이를 한다.

병철

자자, 다시 잔들 다 채우시고!
저희 비주얼라이징의 정수, 코어, 핵심이신
서관수 대표님께서 한 말씀하시겠습니다.

관수, 손사래 치며. 아이 참. 그러지 말라니까.

다리를 꼬고 앉은 채로 관수. 다들 캐주얼한 옷차림 가운데 정장 차림의 관수.

관수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권위적인 것, 끈대 마인드 딱 질색입니다.
친구처럼, 친형처럼, 오빠처럼.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파이팅 해봅시다!

몇몇 사람들이 잔을 부딪치고 마시려는데

관수

오늘은 자전거 가겠습니다.

직원들, 창피해하지만 속닥속닥 멘트를 일러주기도 하고 다른 건배사를 검색하는 직원들도 보인다.

신입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

힐끔거리는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

관수

(우렁차게) 자!

다같이

자신감과!

관수

(우렁차게) 전...

다같이

전문성을 갖고!

관수

(우렁차게) 거~

관수, 다같이

...거리로 나서자...!

어수선

거리...나서자...!

적극적으로 잔을 부딪치며 원샷하는 관수.
분위기를 수습하는 병철.

병철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건배사는 이쯤하고
여기, 이쪽부터 한 사람씩 소개하면 되겠네.

cut to

두 명의 새로운 직원들이 자기소개를 시작한다.
안녕하십니까? OO팀 OOO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씩 자기소개가 끝날 때마다 터지는 박수와 호응.
취기가 오른 듯 두 눈을 느리게 깜빡이는 **재훈**은 상황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다.
재훈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문자.

뭐해?

마지막 차례의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매우 세련된 차림의 선영.
편의성에 맞춰져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옷차림과는 달리 이질적으로 느껴진다.

선영

이번에 기획팀에 들어오게 된 오선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철

남자친구 있어요?

선영

지금은 없어요.

관수

오~ 지금은~?

병철

마지막 연애는?

노골적인 표정을 짓지는 않지만 들뜬 분위기의 남자 직원들을 쳐다보는 여자 직원들.
재훈의 핸드폰 화면.

자니?

입력하는 재훈.
그 순간, 술집 문이 벌컥 열리며 나타난 동화.
선영을 발견하고 성큼 다가온 동화가 무릎을 꿇고 꽃다발과 반지를 내민다.

동화

선영아 사랑해. 나랑 결혼해줄래?

병철을 필두로 우레와 같은 함성과 함께 박수가 터진다.

병철(v)

재네 오늘 아침에 헤어졌단다.

S#2. 호프집 앞 / 밤

재훈과 병철이 길가에 서서 흡연 중이다.

병철

연락을 안 받으니까 회사 근처 술집을 썩 다 뒀진 모양이던데.
운이 좋은 건지 근성이 좋은 건지...

재훈, 핸드폰이 울려서 확인하면

오빠,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로 시작하는 성인 스팸 문자다.

다시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초조한 듯 흡연하는 재훈.

재훈의 핸드폰 화면. '수정' 과의 카톡창.

뭐해?

자니?

카톡 문자 옆, 숫자 1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다.

병철

난 장난으로라도 헤어지자는 말 들으면 정나미가 푹 떨어지던데.
어릴 때야 경험이 없으니 화도 낼 수 있고 막장까지 가 볼 수도 있다 치지만...
저게 뭐냐. 쪽팔리게.

좁은 길 건너편의 선영과 동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동화가 선영의 따귀를 먼저 때리면 고개를 푹 숙이는 선영. 어쩔 줄 몰라 하며 동화가 다가서면 동화의 뺨을 갈기는 선영. 폭발한 동화가 달려들려고 하면 그제야 행인들이 동화를 붙잡고, 선영이 다시 돌아와 동화의 뺨을 한 대 더 때리고 가버린다. 사람들에게 붙잡힌 와중에도 그런 선영에게 삿대질하며 쫓아가려하는 동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병철, 감상을 공유하고 싶은 듯 재훈을 돌아본다.

감쪽같이 사라진 재훈.

술집 안을 확인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병철이 재훈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통화 중인 재훈의 핸드폰.

병철

(다시 전화하며) 하여간 자식이 술만 마시면…!

S#3. 몽타주

무수히 반복되는 다른 종류의 컬러링들.

카톡 화면 가득 입력되는 문자들과 사라지지 않는 숫자 1.

휘청거리며 정처 없이 밤거리를 배회하는 재훈의 모습.

뭐해?

자니?

전화 좀 받아봐.

내가 잘못했어. 너 아니면 안 되겠다고 도저히.

나쁜 면아!

년

title. 가장 보통의 연애

미안해 πππ

S#4. 재훈의 집, 거실 / 낮

거실 바닥에 누워있던 재훈이 카톡 알람에 두 눈을 번쩍 뜬다.

30평대의 아파트 거실, 활짝 젖혀진 커튼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다.

난장판이 된 그곳엔, 주차금지 표지판과 인물 등신대, 생 옥수수 여러 개가 검은 봉지에서 튀어나와 굴러다니고 있는데…

베란다 통창 앞, 잎이 마른 화분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기겁하며 핸드폰부터 확인하는 재훈.

사방팔방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던 흔적이 보인다.

기본 10통 이상씩 건 탓에 그만 좀 하라는 문자, 또 술 마시냐는 문자, 쌍욕, 바뀐 번호 알림, 반응도 제각각이다.

심지어……

그래. 재훈아. 한잔 했나 보네. 몸 생각해라.

전 여친과 동명이인인 교수인 ‘전수정 교수’ 에게도

수정아 너는 내 20대의 전부였어.

라고 보내 났다.

그때 ‘병신’ 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고. 바로 받는 재훈.

cut to

이미 생 옥수수가 한 가득인 냉동고에 억지로 옥수수들을 구겨 넣으며 통화중인 재훈.

재훈

어. 집에서 잤어.

지랄. 안했어. 내가 돌았냐? 개한테 연락을 하게. 진짜라니까.

(깜짝) ...너 뭐야???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식탁 위에서 재훈을 지켜보고 있다가 다가가자 쩍싸게 달아난다.

병철(v)

뭐야? 여자야?

재훈

아니 고양이가...

병철(v)

고양이 같은 여자?

출근 시간이 임박한 것을 확인한 재훈. 고양이 잡는 것은 포기한 채 집을 나선다.

집주인(v)

아니 총각. 2년 계약한 걸 사정사정해서 녀 달 만에 빼달라더니,

집을 못 보게 하면 어떡해요. 이게 벌써 몇 명 짜야?

S#5. 길거리 A / 낮

담배와 숙취해소 음료를 산 재훈이 통화하며 편의점 밖으로 나오는데

재훈

...제가 사정이 좀 있어서요.

구조야 어차피 다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집주인(v)

누가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해?

이런 식이면 난 아무것도 못해주니까 그런 줄 알아요.

통화를 마치고 자신의 차로 향하는 재훈.

갓길에 세워둔 그의 차 앞에 국산 SUV 한 대가 정차하고 정수가 내린다.

한 눈에도 탈모가 진행 중인 **정수**는 배가 상당히 나왔다.

재훈을 보고 반응하는 정수.

정수

재훈? 이재훈이! 맞지?! 이야~ 어떻게 이렇게 보냐.

재훈

(누구지?) 어 그래. 반갑다. 오랜만이네.

정수

정수야. 철학과. 나누미. 봉사동아리.

재훈

아 박정수!

정수

김정수.

재훈

기억하지! (정수의 벗겨진 머리 보며) 너무 변해서. 못 알아보겠네.

정수

결혼하고 살이 너무 찌서.

알잖아. 요즘엔 (술잔 꺾는 시늉) 이것밖에 낙이 없다.

우리 애들 한번 볼래? 얼마 전에 둘째 태어났거든.

핸드폰으로 애기들 동영상을 보여주는 정수, 기대에 찬 눈으로 재훈을 쳐다보는데.

정수 부부와 하나도 닮지 않은 아이들 얼굴.

까르르~ 비명을 지르며 방안을 돌아다니는 첫째와 보행기에 앉아 말뚱말뚱한 둘째.

재훈

정말... 어? 애들이 참...

정수

나도 참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익숙해졌어.

아들들은 원래 엄마 닮는다잖아. 자연미인 인줄 알았는데...

재훈

무슨 말이야. 예뻐. 귀엽고.

정수

너는 관리 잘했다. 제수씨가 잘해주나 보네.

결혼한다는 애긴 들었는데. 한창 신혼이겠어.

미적지근한 재훈의 반응에 정수가 당황하는데.

재훈

(반지가 없는 왼손을 보여주며) 그렇게 됐어.

정수

이혼?

재훈

파혼.

정수

야 씨. 새끼. 존나 부럽네. 응? 잘했어. 하지 마. 요새 안하는 게 또 추세라잖냐.

그 뭐였지?비혼! 못하는 거랑 안 하는 건 천지차이지.

재훈

...

정수

...아무튼 그것 참 생각할수록... 대단하다 야!

그때 정수의 핸드폰이 울리고 기다렸다는 듯 반응하는 정수.

정수

다음에 술이나 한잔 하자. 내 번호 알지?

재훈

몰라...

정수

아 예 부장님. 거의 다 왔습니다. (멀어지며) 연락하자!

통화하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정수.

재훈, 숙취해소 음료를 단숨에 들이키며 차로 간다.

정수의 차를 보는 재훈. 「아이가 타고 있어요」 자동차 스티커가 붙어 있다.

잠시 멈춰 서서 스티커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차에 오르는 재훈.

S#6. 회사 앞 / 낮

사무실 건물 주차장.

이제 막 주차하고 차에서 내린 재훈이 담배에 불을 붙인다.

건물 입구를 향해 느리게 걸어가며 핸드폰을 확인하는 재훈.

‘수정’에게 보낸 카톡 문자들.

문자 옆 숫자 1은 사라지고 없다.

잠시 멈춰 선 재훈.

미안하다. 어제 회사 회식

까지 입력하고 문득 생각난 듯 지나간 카톡창을 확인한다.

술김에 보낸 문자와 맨 정신에 보낸 사과 문자가 며칠째 매일같이 ‘수정’에게 전송되어 있다.

내용도 거의 같다. 답장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잠시 주저하는 재훈의 손끝.

결심한 듯 ‘수정’의 연락처를 삭제한 후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는 재훈, 담배 한 대를 더 꺼내 불을 붙인다. 그 순간 근처로 와서 정차하는 벤츠 한 대.

보조석에서 내리는 선영.

동화

끝나면 데리러 올게.

선영

니가 안타면 소리 지른다 해서 탄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따라 내리며 선영을 붙잡는 동화.

동화

야 진짜 너 끝까지 이럴래?

선영

나 오늘 첫 출근이야. 너 때문에 내가 어제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동화

잘못했어. 이제 정말 안 그런다니까.

선영

그래서 연락 그만하기로 했잖아.

동화

니 맘대로 헤어지냐?

선영

너도 니 맘대로 바람 뿜잖아. 나도 내 맘대로 좀 할게.

동화

아니라고 했잖아!

선영이 무시하고 가려하면 다시 붙잡는 동화.

동화

그래서 맞바람 뿜으면 통친 거 아냐?

선영

그걸 끝났다고 하는 거야 병신아.

코웃음 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어둠 속에서 재훈을 발견하는 선영.

최대한 무심한 척, 의식하지 않는 척 흡연하는 재훈.

동화

성질 좀 죽이고 살아! 너 그게 다 노처녀 히스테리아 알아??

재훈을 못 본 척 회사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선영.

S#7. 사무실 / 낮

재훈이 회사 안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옆자리에 새로운 짐이 놓여 있는 게 보인다.

재훈이 다른 직원들과 아침 인사를 주고받는 중에 사무실 끝 방문이 슬며시 열리고, 관수가 이리 오라며 재훈에게 손짓한다.

S#8. 사무실, 대표 방 / 낮

재훈이 방 안으로 들어가면 소파에 앉아 있던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재훈과 관수가 자리를 잡고 앉으면 그제야 자리에 앉는 선영.

관수

원래 어제 따로 인사시키려고 했는데. 두 사람 다 중간에 사라져버려서.
내가 아무리 사생활은 터치 안한다지만 설마 벌써? 어~? 아니지?

무심결에 선영의 셔츠 사이 가슴골을 보던 재훈.
선영과 시선이 딱.

재훈

내 스타일 아냐.

선영

.....

관수

새끼가 (선영 눈치 보며) 당연히 농담이지.....

머쓱한 분위기.

관수

아무튼 이쪽은 이번에 기획팀에 새로 들어온 오선영씨라고 하고.
여긴 기획과 제작을 맡고 있는 이재훈 팀장.
기본적인 건 여기가 알려줄 거고.
경력자라 금방 적응할거야. 책임감을 가지고 잘 좀 부탁해.

꾸벅 재훈에게 인사하는 선영.

재훈

반갑다. 앞으로 잘해보자.

선영, 멍칫하다가

선영

그래 나도 잘 부탁한다 야.

당황한 재훈과 관수를 향해 베시시 웃는 선영.

선영

농담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재훈

...

관수

이 친구 이제 보니 아주 재밌는 사람이었네. 하하하하!

관수가 호탕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본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바라보는 듯 불안한 시선.

S#9. 탕비실 / 낮

마주보고 앉은 재훈과 선영.

자료를 꺼내서 선영에게 내미는 재훈.

재훈

그게 최근 석 달간 작업했던 기획서들. 계약까지 간 건 여기 네 개.
한번 읽어보면 대충 감이 잡힐 거야. 이미 작업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우선
PPT만 오늘 퇴근 전까지 마무리해줘. 모레가 심사니까 시간 좀 맞춰주고.
...할 수 있지?

선영

네.

탁자 위 잔뜩 쌓인 기획서들.

대왕 옥장판, 지리산 홍고추, 속초 오징어 축제 등등의 활자가 눈에 띄는데.

재훈

그래. 원래 이 일을 했었다고?

선영

잡코에 잠깐 있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져서 그만두게 됐는데, 지금은 다 나았구요.

재훈

...TV 광고하던 사람이 시시해서 다닐 수 있겠나.

선영

요즘 같은 취업난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영이 기획서를 뒤적거린다.

또다시 무심결에 선영의 셔츠 사이 가슴골을 보는 재훈.

선영이 그 사실을 눈치 챈 듯 시선이 딱 부딪치는 두 사람.

재훈

남자친구랑 다시 만날 생각 없어?

그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정말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선영

동창회에서 전 여친을 만났다는데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연락이 두절됐어요.

자느라 그랬다는데 그게 모텔인지 집인지 제가 어떻게 알죠?

재훈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고.

선영

만 분의 일이면 0.0001프로네요.

재훈

거기도 다른 사람 만난 것 같던데...

선영

그럼 당하고만 있어요? 별로 좋아해서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재훈

누굴 만나고 헤어지는 게 가벼운 일은 아니지 않나?

선영, 서류를 뒤적이던 손길을 멈추고 재훈을 뵈히 보다가.

선영

혹시 몇 년생이세요?

재훈

85

선영

저도 85요.

재훈

동갑이네. 너도 말 봐. 나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선영

빠른이요.

다시 서류에 집중하는 선영.

병철(v)

솔직히 말해봐.

S#10. 순댓국밥집 / 낮

식사 중인 재훈과 병철.

재훈

뭘.

병철

연락했지?

재훈

아 안했다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식사중인 비주얼라이징 식구들.

병철

명심해라. 여자들은 한번 돌아서면 끝이야.

개네가 헤어지자고 할 땐 이미 환승할 준비 다 끝내놓고 그러는 거거든.

우리랑 틀려. 얼마나 여우같은데.

재훈

...

병철

백 프로라니까.

재훈

아 진짜.

병철

재도 그럴걸?

멀지 않은 곳, 식사중인 선영의 모습.

재훈이 쳐다보자 시선을 느낀 듯 바로 쳐다보는 선영.

얼른 눈길을 피하는 재훈.

재훈

그러든가 말든가.

cut to

반대편에서 식사 중인 여자 직원 무리들과 선영.

찰칵, 음식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윤주. 두 눈 크게 뜨고 예쁜 표정을 짓는다.

사진의 주인공이 음식인지 윤주인지 모호한데.

반대편에서 브이 하는 경은.

선영, 그녀들의 모습이 신기한 듯 힐끔 보는데. 실례가 될까봐 자세히는 보지 못한다.

그때, 고개를 숙 들이미는 미영.

미영

그래서? 어제 그 남자랑은 어떻게 됐어? 완전히 끝내기로 한 거야?

호기심을 보이며 쳐다보는 경은과 윤주.

선영

그래야죠.

미영

그런 애들이 헤까닥하면 염산 뿌리고 칼 쏘시고 하는 거야.

한동안 뉴스에서도 난리였잖아. 조심해야 돼.

선영,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윤주

(선영 쳐다보며) 그래도 전 좀 부럽던데. 진짜로 사랑하는 것 같고.

요즘 남자들 예전같이 막 안 들이대잖아요.

간만 실컷 보고. 뭔가 결정해야 된다 싶으면 바로 회피하고.

미영

너 그러다 칼 맞아 야.

경은

그래도 이전보다 조심하는 분위기이지 않아요?

미투 운동도 그렇고.

미영

언제는 법 없어서 교통사고 안 났니?

경은

왜 헤어진 거예요?

윤주

말해 봐요. 어차피 헤어졌다면서요.

cut to

재훈 쪽 테이블.

병철

지금 30대 여자들 죄다 파리의 연인, 천국의 계단, 풀 하우스 이런 거 보고 자란 애들이야.

개네들이 다 된장녀, 김치녀, 맘충 소리 듣고 있는 거고. 난 저런 애들 많이 봤다.

첫날에도 솔로라고 거짓말하는 거 봐라. 어필하는 거지.

재훈이 선영을 힐끔 보며

재훈

맞바람 피웠다는 거 같긴 하더라.

병철, 그것보라는 듯.

병철

여자들 결혼해야겠다 싶잖아? 그때부터 과거 세탁 들어가 임자 있는 티를 절대 안내요.

항상 준비된 자세. 언제든지 갈아타겠다는 의지.

왜 니 전 여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끝까지 셀카만 올려댔잖아.

니 SNS, 프로필 사진은 존나게 신경 쓰면서.

재훈

...

병철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미영(v)

미친새끼!

미영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재훈과 병철이 힐끔 쳐다보는데.

cut to
선영 쪽 테이블.

미영

(주위 의식하고 목소리 낮춰)
바람피우는 거 습관이고 버릇이지 절대 실수 아닌 거 알지?
괜히 매달린다고 마음 약해져서 용서해주면,
그게 니 팔자 니가 꼬는 거야.

윤주

근데 그 오빠도 참 대단하다.
무슨 낯짝으로 찾아와서 매달리기 까지 했대요?

미영

요즘 남자들이 딱 아들아들하던 꼴물이잖아.
이전 세대들은 집안의 기둥이다 뭐다 해서 참을성이라든 책임감이라든 길렀지
애네는 그냥 귀하게만 자랐거든.
딱 장난감 코너에서 드러눕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집, 혼수는 반반해야 된다 하면서
맛벌이라도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놈들도 나오는 거고.

선영, 다시 한마디 없어 보려는데. 틈을 주지 않는 여직원들.

미영

잠깐. 우리 회사에 총각이 누구누구 있었지?

윤주

이 팀장님이라든 CG팀에 강 기사님?

경은

강 기사님도 (소근) 남친 있잖아요.

윤주

게이였어?!

경은, 조용히 하라며 눈빛 보내고

옆 테이블에서 강 기사가 쳐다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윤주가 밥을 한 술 크게 뜬다.

미영

인물이 없네.

경은

이 팀장님 한 달 전에 파혼 당했거든요.

미영

청첩장까지 다 돌리고. 회사 그만둔다는 거
서대표가 이 팀장 자살할까봐 붙잡은 거라는 얘기도 있고.

윤주

두 사람이 대학 선후배 사이라서요.

미영

낙하산낙하산.

선영, 힐끔 재훈을 쳐다본다.

미영
야 보지 마. 본다.

cut to
재훈이 선영을 쳐다본다.

병철
할래 안할래?
재훈
니 여자 친구 친구면... 스무 살이잖아.
병철
어. 존나 좋지?
재훈
개 생일은 지났냐?
병철
모르지. 물어봐줄까?
재훈
변태새끼.
병철
왜?

cut to
선영 테이블.

선영
...혼자인 게 편해요.

호로록, 순댓국을 먹는 선영.

cut to
재훈 테이블.
섞박지를 집어 우적우적 씹는 재훈.

S#11. 사무실 / 밤

완성된 PPT를 확인하는 선영. 시간을 확인한 뒤 재훈 자리를 보면 비어있다.
가방이 있는 걸 봐선 퇴근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선영, PPT자료에 나와 있는 재훈의 연락처로 전화해보지만 받지 않는다.
불일을 본 미영이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미영

뭐야? 아직도 퇴근 안 했네?

선영

...

미영

(힐끔) 대표 때문에 그러는 거면 안 그래도 돼. 원래 집에 잘 안 들어가.
...맞고 산다는 소문도 있고.

불이 켜져 있는 대표 방.

선영

이 팀장님은 퇴근 하신 거예요?

미영

(시간 보고) 한잔 하러 간 모양인데? 요즘 매일 그래.
설마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선영

(다시 전화하며) 작업 부탁하신 게 있어서요.

8시를 훌쩍 넘은 시간.

소리(v)

전화를 받지 않아.....

미영

그냥 퇴근 해.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연락도 잘 안 돼.

S#12. 선영의 집 앞 / 밤

저 멀리 오피스텔 입구를 향해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는 선영.

핸드폰 알람이 울리자 확인해보는데.

동화에게서 문자가 와 있다.

사랑해.

무시하고 다시 걸어가는데 또다시 울리는 알람.

미안 잘못 보냈다.

그제야 동화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면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선영.

S#13. 선영의 집, 복도 / 밤

복도를 따라 쪽 걸어서 자신의 집 앞으로 가는 선영.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자리에서 굳는다.
원룸 타입의 오피스텔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다.

S#14. 선영의 집 / 밤

엉망진창이 된 집 안 테이블 바 앞에 앉아 통화중인 선영.
그녀의 앞에는 통장이며 귀중품이 놓여 있다.

선영

복도에 CCTV, 좀 전에 확인하고 왔어. 일 커지는 것도 피곤하고 신고는 안할게.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만 해줬으면 좋겠어.

동화(v)

내가 사과를 왜 하나 씨발.

선영

넌 아니다?

동화(v)

까놓고 그 집에 나만 드나들었냐?
너 그 나이에 만나고 헤어진 남자만 나까지 몇 명이야.
거기서만 10년 살았다며.

선영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동화(v)

아니 그냥. 새삼 참 많이도 들락날락 했겠다 싶은 거지. 그 집이나 저 집이나.
너 같은 걸레를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멍 때리다가 실소하는 선영.

선영

그래. 니 말대로 내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봐서 해주는 말인데.
너 자지 존나 작아. 니 엄지발가락이 더 크겠더라.

S#15. 길거리 B / 밤

끊어진 전화를 귀에서 떼고. 우두커니 서 있는 동화의 모습.

S#16. 선영의 집 / 밤

선영, 엉망진창이 된 집 안을 가만히 둘러본다.
지쳐 보이는 얼굴.
냉장고로 가서 소주를 글라스에 따라 물처럼 벌컥벌컥 마시는데 울리기 시작하는 선영의 핸드폰.

핸드폰으로 향하는 선영의 짜증 섞인 시선.

S#17. 재훈의 집, 거실, 베란다 / 낮

또다시 거실 바닥에서 눈을 뜬 재훈, 숙취에 괴로워한다.
못 보던 쓰레기가 또 늘었다.
누운 상태로 머리맡의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바빠 움직이는 엄지손가락.
아 씨ㅆ…! 팔을 떨어뜨린다.
툭, 툭툭, 툭툭툭, 툭……
정체불명의 소음에 고개를 들어 확인하면,
거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옥수수를 한가로이 찢고 있는 뚱뚱한 비둘기 한 마리.

재훈(v)
니가 말렸어야지.

cut to
통화중인 재훈이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열고

재훈
말려도 안 되면 핸드폰을 뺏던가… 차라리 죽여 버리지 그랬냐??

비둘기를 날려 보내는데…
날지 못하고 낙하하는 비둘기.

병철(v)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 해. 너 설마 극단적인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남은 사람들은 어찌고 임마!
그깟 여자가 뭐라고 고작 파혼 한 번 당한 걸 가지고.

cut to
냉동고에는 더 이상 옥수수가 들어갈 틈이 없다.
어쩔 수 없이 냉동고의 문을 닫는데…
그제야 문 뒤의 고양이를 발견하고 기겁하며 나동그라진 재훈. 이내 정신을 차리고 고양이에게 달려든다. 껌싸게 도망가는 고양이.
쫓고 쫓는 추격 끝에 다다른 어느 방 문 앞.
고양이는 간발의 차이로, 문손잡이가 박살나서 제대로 닫히지 않는 문을 밀고 들어가 버린다.
미세한 틈을 남겨두고 저절로 닫히는 문.
가만히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있는 재훈.
거실 TV는 분명히 부서지고 꺼져 있는데 흡쇼핑 광고 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재훈이 방문을 완전히 닫는 동작과 함께 푹 끊긴다.

S#18. 재훈의 집, 거실 / 아침

여전히 엉망진창인 거실.

옷을 갈아입은 재훈은 통화중이다.

양말을 신고 가방과 옥수수가 든 검은 봉지를 챙겨 현관으로 향하는 재훈.

재훈

아뇨.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우연히... 집에 들어왔어요. 18층이요.
해봤죠. 너무 빨라서요. 구청에 전화해보면 된다고 나와 있던데. 인터넷이요.

재훈,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는데. 어느 새 나타난 고양이. 그곳 가운데에 느긋하게 앉아서 약 올리듯 그루밍을 하다가 재훈을 쳐다본다.

집을 나가는 재훈.

재훈

동물농장이요??

현관문이 닫힌다.

S#19. 회사 앞, 차 안 / 아침

막 주차를 마친 재훈. 핸드폰을 확인한다.

간밤에 재훈이 핸드폰 번호 끝자리 5942에게 보내놓은 카톡 문자들.

일전에 보낸 것들과 크게 바뀐 것이 없는 내용을 통해 ‘수정’임을 알 수 있다.

숫자 1은 사라지고 없으나 답장도 없다.

번호를 외우기 때문에 연락처를 지워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재훈.

cut to

운전석에 앉은 채, 핸드폰으로 지식인에 “수신 차단” 라고 적었다가 지우고 “발신 차단” 단어를 검색하는 재훈.

검색 결과가 뜨고 내용을 확인하는데 재훈이 원하는 검색 결과가 딱 하나 눈에 띈다.

제가 전화나 문자를 안 하고 싶은 번호가 하나 있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자세한 얘기는 하기 힘들지만 번호 하나만 연락 못하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답변들을 확인하는 재훈.

되겠냐?

알콜중독 치료센터 위치와 연락처들...

좋아하는 사람에게 연락 오게 하는 법. 이 글을 복사해서 10군데에 올리면...

바로 그 순간.

선영

그럴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다는데 왜 자꾸 그래.
가뜩이나 집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엄마까지 이럴래?
그런 게 있어. 갑자기 서울을 왜 와!

불쑥 나타난 선영이 회사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려다 급선회해서 주차장으로 온다.

선영

남자라면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있어.
엄마가 창피한 거지 난 아무 문제없다니까?
(사이) 여기 죄다 유부남이야. 아, 남자 좋아하는 남자랑 파혼당한 남자 하나 있네.
아 몰라. 당할 만하니까 당했겠지.

철컹.

검은 봉지를 든 재훈이 차에서 내린다.

선영

당당할 만하니까 당당한 거야.

엄마(v)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야. 아침은 먹었냐니까.

선영이 흘끔 재훈을 돌아보면 분명히 눈이 마주친 것 같은데...

철저하게 그녀를 무시하고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재훈.

병철(v)

뭔데 그게?

S#20. 사무실, 대표 방 / 낮

흡연 중인 관수와 병철에게 검은 봉지를 씹-내미는 재훈.

병철

(확인하고) 웬 옥수수?

관수

뭐야 날 거네. 삶아 오지.

재훈이 다시 봉지를 뺏으려 하면 얼른 봉지를 자기들 쪽으로 당기는 관수와 병철.

재훈

기억 안나. 술김에 산 거 같긴 한데.

병철

훔친 거 아냐?

관수

너는 이 새끼를 뭘로 보고...

관수가 다시 옥수수를 재훈에게 내민다.

병철

왜. 무슨 짓을 했을지 어떻게 알아.

기억을 못하는데 산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재훈

(찜찜) 내놔 그럼.

다시 자기들 쪽으로 옥수수 봉지를 당기는 관수와 병철. 옥수수를 두고 옥신각신.

그때 재훈의 통화목록에서 발견하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끝자리 7707.

재훈, 꼭 눌러보는데. 뭐야 이거?

핸드폰 화면. 통화를 무려 두 시간이나 했다.

관수

야 너 20대 때 생각하면 안 돼.

젊을 때야 사고로 끝나지 나이를 먹으면 사건이 터져요.

블랙아웃 그거 심각한 거야.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니까.

재훈

이제 술 안 마셔. 끊을 거야.

잠시 반응했다가 무시하는 관수와 병철. 옥수수를 나누는 일에 열중하는데.

재훈

혹시 7707 번호 있는 사람 있어?

병철

(핸드폰 꺼내며) 7707?

(확인하고) ...없는 거 같은데?

젖싸게 봉지를 들고튀는 관수.

분통을 터뜨리는 병철.

병철(v)

그거 수정이 아니냐?

S#21. 사무실 / 낮

재훈의 자리로 와서 대화하는 병철의 모습.

재훈

술 취해서 문자할 때마다 읽었어.
...답장은 한 번도 안 왔지만.

병철

너 개한테 연락 안한다고 하지 않았냐?

재훈

...

병철

그럼 누구지? 부재중이 먼저 와 있다며. 그 동안 니가 워낙 진상을 떨어놔었으니까
전 여친들 남친이나 남편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같긴 한데.
무슨 얘기했는지 정말 하나도 생각 안나?

재훈

(절레절레) 하아...

병철

바로 전화해보기 그러면 카톡 연동해 봐.
웬만하면 다 쓰니까 프로필 사진보면 누군지 알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재훈

뭔데 그게?

병철

아오 병신 새끼. 이리 줘봐.

핸드폰을 건네받고 잠시 뒤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는 병철.

병철

어 씨발 좇됐다. 통화버튼! 신호 간다!

재훈

야 일단 끊어! 끊어!

두 사람을 지나쳐 자리로 돌아온 선영. 진동이 울리는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병철이 스피커 버튼을 잘못 누른 듯 컬러링 소리가 커진 후 통화연결, 여자 목소리.

선영

여보세요?

병철

(작은 목소리로) 여자! 여자여자여자!

전화 받고 있는 선영을 쳐다보는 재훈.

병철

(상황 파악을 못하고 전화 받은 뒤) 여보세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선영 한번 돌아본 뒤 다시 핸드폰에 집중하며) 실례지만 누구시죠?

S#22. 사무실, 회의실 / 낮

회의 중인 비주얼라이징 사람들의 모습.

관수

(시나리오를 들여다보며) 그러니까 니 말은 엄마가 빨래를 걷고 있다가
요즘 우리 아이가 공부에 푹 빠졌어요. 이게 다 오케이보이 덕분. 하면
뒤에 아이가 식탁 위에서 오케이보이를 보고 있다는 거지?

재훈

아니. (연기하며) 빨래를 이렇게 탁 털고 (여자 목소리 흉내)
요즘 우리 아이가 공부에 푹 빠졌어요. 이게 다 오케이보이 덕분이예요!
하고 빠져야지. 그럼 가려져 있던 애가 책을 읽고 있는 거고.
컷 전환되면서 책이 오케이보이로 바뀌는 거고.

미영

바로 제품이 보이는 게 낫지 않아요? 큰 차이도 없는 거 같은데.

재훈

어딜 봐서 이게 지금 학습용으로 보이냐고.
누가 봐도 똥똥하고 못생긴 게 성형까지 한 아이패드인데.
이것 봐. 누가 고스톱 받아놨어? (책상 랑 치며) 누구야?

유독 놀라는 병철. 싸늘한 분위기.

관수

오선영씨 생각은 어떤데?

선영에게 주목하는 직원들과 그리고 재훈.

선영

학습 보조기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전자도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아이에게 오락기를 사주고 싶어 하는 부모는 없으니까요.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제품은 아니니까 책의 이미지를 최대한 노출하는 방향도
생각해볼 수 있고요. 저는 이 팀장님 의견이 좋은데요.

끄덕끄덕, 재훈을 쳐다보는 관수.

짧은 순간, 선영과 눈이 마주치자 먼저 시선을 피하는 재훈.

재훈

...그러니까...내 생각에도...책은 반드시...

재훈의 모습에 살짝 의아해하는 직원들 모습.

윤주

(손들고) 저는 오케이보이는 좀 아닌 거 같아요. 걸도 있는데 왜 하필 보이예요?

재훈

…우리가 제조사냐? 니가 전화해서 그쪽 사장한테 물어보든가?

냉랭한 분위기.

볼펜과 종이 소리만 들리는데 콧소리가 흥 난다.

울음을 터뜨리는 윤주.

S#23. 중국집 / 낮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선영, 미영, 경은, 윤주.

엉엉 울고 있는 윤주.

윤주

그 사람이 어떻게 저한테 그래요?

선영

두 사람 무슨 일 있었어요?

미영

애가 혼자 착각하고 좋아했어.

윤주

제가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웃는 얼굴이 이쁘다구…

미영

응. 술 먹고 그런 거야. 기억도 못해. 나도 문자 받은 적 있는데 뭘.

경은

전 전화요…

선영, 옆 테이블에서 쳐다보는 강 기사와 눈이 마주친다.

나도요…라고 말하는 듯한 강 기사의 눈빛.

미영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다들 이해해주는 분위기지 뭐.

그렇게 된 원인이 너무 확실하니까.

…조만간 연락한번 갈 건데 개가 하는 말에 의미두지 마. 주사부리는 거니까.

선영

(무심하게) 근데 그거 미투감 아닌가요?

술 취해서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예쁘다느니 좋아한다느니

충분히 폭력적인 거 같은데.

순간, 얼어붙는 분위기.

윤주

그렇다고 뭐가 더 있는 건 아니라서...

선영

있었으면요.

그땐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미영

에이. 이 팀장은 그런 사람 아니야.

선영씨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윤주

뭐랄까. 좋은 의미에서 사람이 좀 촌스럽다고 해야하나.

경은

딱 잘라 말하긴 어렵고 더 지내보면 무슨 애긴지 아실 거예요.

선영

(웃으며)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나쁠 것 없으니까요.

음식이 나오고.

선영

그 분 파혼은 왜 당하신 거예요?

서로 눈치 보는 경은, 미영, 윤주.

경은

사실 당한 건지 한 건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미영

남녀 문제야 당사자들만 아는 거니까. 물어보기도 그렇고.

맨날 붙어 다니는 최대리나 형, 동생 하는 서대표도 모르는 눈치거든.

윤주

짐작만 하는 거죠. 저렇게까지 망가지는 걸 보면 아마도 당한 쪽이 아닐까 하고.

미영

그편이 상식적이지

경은

원래는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았잖아요.

선영의 놀란 반응에

미영

바로 팀장 달고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가

애가 기본적으로 싸가지가 없는데 정은 많거든.

경은

여자들이 원래 그런 거에 약하잖아요.

미영
츄데레츄데레.

S#24. 애견샵 / 낮

샵 안을 둘러보는 재훈, 병철, 관수.
고양이 사료 코너에서 이것저것 보는데,

관수

갑자기 무슨 고양이 사료야. 너 고양이 키우게?

병철

야 그러지 말고 여자를 만나.

너 혼자서 동물 키우면 점점 더 사람이랑 멀어진다?

관수

왜. 고양이 동호회 같은 데서 여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재훈

...

병철

그렇게 부지런한 놈이면 제가 걱정도 안하죠.

막. 이제 더 이상 사람은 못 믿겠다고. 점점 염세적으로 변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한 마리 더 데려다 놓고.

비오는 날에 길 가는데 한 마리 봐. 마음이 막 아려. 데려와.

지들끼리 새끼 까고. 막 불어나. 또 까. 졸라게 해.

나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데에 고양이 아빠 이런 걸로 나와 가지고
인터뷰하는데 이웃 주민들이 막 니네 집 시끄럽고 냄새난다고 욕하고 막...

(맞다) 대표님도 얼마 전까지 분양방법 알아보고 그러셨잖아요.

관수

둘째가. 요즘 유튜브에 한창 빠져가지고.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지.

집사람이야 내 말이면 다 따르니까.

병철

...형. 행복해요?

관수

야. 그럼~

남자는 결혼을 해야 돼. 안정감이 딱 생기면서 일도 잘 풀리고...

전화가 울리고 받는 관수.

관수

어 여보. 잠시만.

(밖으로 나가며) 전화했어? 내가 왜 자기한테 거짓말을 해.

캡처해서 보내줄까? 지우긴 뭘 지워...

에이씨 모르겠다 제일 비싼 것을 집어 카운터로 가는 재훈.

직원

처음이라면 화장실이랑 모래도 필요하실 텐데.

샴푸, 스크래처, 발톱 깎기...

급식기는 있으세요?

재훈

아무거나 알아서 챙겨 주세요.

직원이 다른 용품들을 챙기러 떠나고.

문 너머로 절절 매며 통화중인 관수의 모습.

병철

니들도 좇돼봐라는 거지?

...저렇게 살 바엔 그냥 고양이 아빠나 해라.

진열대에 있던 고양이 장난감을 하나 챙겨서 툭 계산대에 던져놓는 재훈.

병철

오선영이랑 얘기는 좀 해봤어? 무슨 얘기한 거래?

재훈

...

병철

두 시간은 진짜 긴데.

너, 막 하면 안 되는 얘기 하고 그런 거 아니냐?

왜, 수정이 얘기라든가...

빙-

어느 새 직원이 돌아와 계산을 시작한다.

바코드를 찍는 소리가 빙-! 빙-! 빙-! 울리는데.

병철

(곰곰)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또 너무 멀쩡한 것도 같고.

혹시 개도 너랑 통화한 걸 모르는 건 아니겠지?

재훈

(헛웃음) 설마.

병철

됐고 그냥 물어봐. 너 요즘 이미지 완전 씹창 나서 더 나빠질 것도 없잖아.

실수한 거 있음 사과하면 되지.

재훈

참부터 그럴려고 했어 새끼야. 니가 (중간에서)...

직원

다 합해서 22만 5천 5백원입니다.

액수에 맥이 탁 풀리는 재훈. 계산을 마치고 먼저 샵을 나가버린다.
같이 가! 뒤따르는 병철.

S#25. 사무실 / 낮

사무실로 들어온 재훈은 제일 먼저 눈으로 선영을 찾는다.
선영은 보이지 않지만 가방이며 소지품은 자리에 있다.
미영, 윤주, 경은의 모습만 보이는데.

재훈
오선영씨 어디 갔어?

의식하는 미영과 윤주.

경은
춘천 교육청 현장 접수요. 인쇄가 잘못됐다 해서 식사하자마자 후발대로 갔어요.

재훈
춘천? (핸드폰을 꺼내며) 혼자?

경은
이번에 편집팀에 새로 온 애랑 같이요. 일도 배울 겸.

재훈
언제 오는데?

경은
아무리 빨라도 퇴근 시간쯤 아닐까요? 춘천이니까.
뭐 시키실 거 있으세요?

재훈
아냐. 일 봐.

7707을 오선영이라 저장하고 나서 문자하는 재훈.
나 이재훈인데. 잠깐 통화 가능한가?

S#26. 사무실 /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는 재훈. 선영의 자리에는 가방이며 소지품이 그대로인데.
밤 9시를 넘긴 시간.
초조해하던 재훈이 결심한 듯 핸드폰으로 선영에게 전화를 거는데 저 멀리서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선영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재훈과 딱 마주치는데.

선영

어? 계셨네요.

재훈

춘천 갔다 왔다면서?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냐.

선영

...사람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는 팀장님 전화 받지 말라고 해서요.

술 드시고 그러시는 거라고.

재훈

낮에도 했어.

선영

낮술도 가끔 드신다고...

간단한 자리 정리를 마친 선영이 가방을 챙겨 일어나는데.

선영을 빨리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과 어떻게 말을 꺼내야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던 재훈.

재훈

우리 어제 통화한 것 말인데...

재훈을 쳐다보는 선영.

병철

뭐야. 왜 아직도 여기서 이려고들 있어?

불쑥 들어오는 병철.

아씨, 뭐야 이건 또!

재훈

(술 냄새...) 너 술 마셨어?

병철

2차 가자! 2차! 내가 쏜다!

선영

전 이만 들어가 볼게요. (이동하는데)

재훈

(허둥지둥) 잠깐 할 얘기가...!

병철

(선영을 향해) 바람피워본 적 있다면서요.

병철의 발언에 그 자리에서 우뚝 멈춰 선 선영과 놀란 표정의 재훈.

미처 재훈이 뭐라고 할 새도 없이 또

병철

애가 그러던데.

이미 맛이 간 병철은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재훈과 선영 사이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데.

병철
여자 친구가... 한별이가... 나보다 어린 애가 좋아졌대.
선영
(재훈에게) 바람을 뺐다고요?
재훈
그게... 그러니까...
병철
고 3이랜다 씨발.

S#27. 이자카야, 틈, 홀 / 밤

혼자 취한 병철.

병철
(혼잣말) 쓰레기 같은 년! 지가 감히 날 두고 바람을 퍼? 미성년자랑?
재훈
바람이라고 한 적 없어. 맞바람이라고 했지.
선영
바람을 뺐으니까 다른 사람을 만난 거지 그게 왜 맞바람이예요.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재훈
헤어지자는 말도 없이 다른 사람 만난 건 마찬가지로잖아.
선영
말도 없이 뺐잖아요. 바람.
병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핸드폰. 핸드폰 어디 갔어?
재훈
(원샷) 왜? 신고라도 하게? (헛웃음) 개네보단 니 쪽이 훨씬 범죄 아니냐?
선영
먼저 다른 사람 만났으면 끝난 거지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병철
(혼잣말) 내가 그동안 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재훈
아 씨(발)...헛갈려 죽겠네 진짜. 그게 중요하냐 지금??
선영
제가 바람을 핀 적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병철
입만 열면 거짓말거짓말거짓말!
선영
(병철에게) 거짓말 아니예요!!!

이미 박살이 난 핸드폰을 발견하는 병철.

병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재훈

니가 아까 차도에 던졌잖아 새끼야.

벌떡 일어난 병철.

휘청거리며 룸을 빠져나간다.

병철

(단호하게) 헤어질 거야. 말리지 마라. 매달려도 소용없어.

(찌렁찌렁) 여기 화장실이 어딴니까?!

둘만 남은 재훈과 선영.

선영,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며

선영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 애기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세요.

재훈

너도 했잖아. 낮에 주차장에서 전화하면서.

선영

전 사실을 말한 거지만 팀장님은 없는 사실을 지어낸 거잖아요.

(스스로 생각해도 구차하지만) 그리고 난 엄마한테 했어요. 회사 사람이랑 같아요?

재훈

말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잖아?

선영, 하! 참! 나! 원!

선영

아~ 어제 술 취해서 전화했죠?

그거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어떨 거 같아요?

나도 말하지 말란 소리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재훈

야!!!

선영

...

재훈

(비굴) ...진짜 말할 거야?

뭐래 진짜? 선영이 룸을 나간다. 계산대로 가서 자기 몫만 딱 추려 계산하려 하는데.

화장실 쪽이 시끄럽더니 웬 아가씨가 병철을 끌고 나온다.
선영을 쫓아서 재훈도 룸 밖으로 나오는데.

아가씨

빨리!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매니저

무슨 일이십니까?

아가씨

아니. 제가 화장실에서 불일을 보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들어오더니…
제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저 완전 수치심 들었거든요?

병철

아 사람 있는 줄 몰랐다고요. 나도 중간에 알았다고.

아가씨

듣고 있었잖아! 변태처럼! 침엔 콧노래 부르다가 소리 들리니까 조용해졌잖아!

병철

아 씹……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럼? 남녀공용이잖아?!

재훈, 계산대에 서 있던 선영을 한번 보고 나서 병철에게로 다가간다.

병철

똥 싸는 소리 듣고 남잔지 여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재훈 향해) 넌 알아?
(사람들 향해) 구분 할 수 있냐고!

아가씨

(부들부들) 똥 안 싸어요!!!
(주위 사람들 의식하며) 나 그런 거 안 싸요!!!

병철

똥 안 싸면 죽어 이 아줌마야!

재훈이 황급히 병철을 가로막으며

재훈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오늘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술도 취했고 오해가 좀 있었던 거 같은데 절대 이상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듯 울기 시작하는 병철, 재훈을 부둥켜안는다.
너무 서럽게 우는 병철을 보며 당황하는 아가씨와 일행들.

아가씨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내가 똑똑히……!

선영

저 사람 게이인데.

정적.

선영
남자 좋아해요.

병철, 뭐? 게이가 있다고? 하며 쳐다보려는데 재훈이 꼬옥 껴안으며 사람들을 향해 어색하게 웃는다.

S#28. 편의점 앞 / 밤

야장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병철.
재훈이 검은 봉지를 들고 편의점에서 나온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재훈과 선영.

재훈
(봉지에서 여명 한 병을 꺼내 내밀며) 마셔줘.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선영
(핸드폰 확인하며) 택시가 없네요. 계속 확인하고는 있는데.
재훈
여기 다 술집인데 기다리다보면 오겠지.

계속해서 핸드폰을 확인하던 선영이 시선을 느끼고 재훈을 보면 눈길을 피하는 재훈.
다시 핸드폰을 보다가 쳐다보면 역시 또 선영을 훑쳐보다가 시선을 피하는 재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눈치인데.

선영
혹시 어제 일 기억 못하세요?
재훈
...아침에 통화목록 보고 알았어.

선영,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김새.

재훈
전 남자친구일 그런 식으로 말한 거 미안하다.
처음부터 미안하다고 하려 했는데...
선영
얘기 한 거 없어요. 그냥 울기만 했으니까.
재훈
(당황) 두 시간 동안?
왜 안 끊었는데?
선영
아무도 자기 전화를 안 받는다고 우는데 불쌍해서요.

어? 택시.

cut to

병철을 택시에 태워 보낸 재훈과 선영.

선영

저도 택시 곧 올 거 같아요. (눈치) 혼자 가실 수 있죠?

끄덕끄덕, 돌아선 재훈. 몇 발자국 건다가 핸드폰을 꺼낸다.

느릿느릿. 휘청휘청. 번호를 누른다. 끝자리 5942.

통화 버튼으로 향하는 손 끝.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돌아서는 선영.

cut to

선영이 택시를 기다리며 시간을 확인하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재훈의 목소리.

재훈

같이 한잔 할래?

선영

...

S#29. 포장마차 / 밤

이제 막 자리에 앉아 술을 까는 재훈.

쭈쭈쭈... 자신의 잔을 채우는 재훈.

재훈, 선영의 잔을 채우고

잔이 부딪친다.

원샷하는 재훈. 마시지 않고 잔을 내려놓는 선영.

선영

매번 이랬어요?

재훈

...

선영

십대 이십대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 같아서요.

꼭 연애 처음 해보는 사람처럼.

재훈

해볼 만큼 해봤어.

재훈, 자신의 잔을 다시 채우고.

선영

난 점점 모르겠던데.

재훈

...

선영

얼굴 보고 말 몇 마디 오고가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 파악이 되니까.

그래서 뭣도 모를 때 연애하고 결혼하라는 거구나 싶던데.

재훈

...진심으로 누구 좋아해본 적 없지?

전 남자친구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만났다면서.

선영

좋아는 했어요. 그러니까 만난거지.

재훈

...

선영

난 사랑에 환상 같은 거 없어요. 옛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자는 많이 만날수록 좋다. 그 놈이 그놈이다.

재훈

어디서 이상한 남자들만 만나고 다녔나 보네.

선영

지극히 보통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훈

여자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선영

몰랐어요? 여자들 다 똑같아요. 남자들이 다 똑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기대할 것도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재훈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선영

...

재훈

좀 불쌍하네.

정적.

자신의 잔을 다시 채우고 원샷하는 재훈.

선영

팀장님은 그런 사람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재훈

당연한 거 아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평생 그 사람만 바라보고 함께 늙어가는 거.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 아닌가?

재훈을 잠시 뵈는 선영,

선영
취했어요? (하며 원샷)
재훈
아니. 지금 딱 좋은데?

선영, 빈 잔을 잠시 만지작만지작 뭔가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순간 결심한 듯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으며

선영
게임 하나 안 할래요?

S#30. 포장마차 / 새벽 (시간경과)

테이블 한가득 술병이 놓여있다.
짴하고 원샷하는 재훈과 선영.
이미 많이 취한 듯 혀가 꼬이고 잘 웃는다.
소리를 내지 않고 입모양만 빼꼼하는 재훈.
그 입모양을 읽어내는 선영.

선영
고추!
재훈
소주.

원샷하는 선영.
재훈의 차례.
선영이 입모양으로만 빼꼼빼꼼하면.

재훈
안주!
선영
맞았다.

선영의 차례.
재훈이 입모양으로 빼꼼빼꼼하는데.

선영

자지!

재훈

(주위 눈치 보며) 가지. 하나 더 할게. 제대로 해 봐봐.

선영이 원샷하며 재훈을 쳐다보면 입을 뻐끔뻐끔하는 재훈.

선영

보...

얼른 선영의 입을 막는 재훈.

재훈

포기! 포기!!! 야. 됐다. 그만하자.

헤헤헤 웃는 선영.

재훈

이거 술 센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세네.

선영

나 왜 이렇게 취했지. 오랜만이라 그런가? 팀장님은 괜찮아?

재훈

야 난 멀쩡하지. 넌 어디 가서 술 마신다 소리하면 안 되겠다.

재훈, 술병을 들어 된장국에 붓는다.

빈 잔을 들어 입으로 털어 넣는 재훈.

빈 잔을 다시 채우려다 병이 빈 것을 확인하고 한 병 더 주문한다.

선영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 뭔지 맞춰 봐봐.

입모양으로 무슨 말을 열심히 하는 선영.

재훈

뭐야 왜 이렇게 길어.

다시 입을 뻐끔뻐끔하는 선영.

재훈

...너랑... 하고 싶다. 세수?

그때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주희.

선영을 발견하고 테이블로 다가온다.

주희

안녕하세요. 저 선영이 친구예요.

재훈

여긴 어떻게…?

선영

야 너 조금만 더 늦었으면 애랑 섹스 할 뻔 했잖아.

주희, 난감해하며

주희

(눈치) 애가 원래 이렇게까지 잘 안 취하는데…

너 왜 이렇게 취했어. 빨리 일어나.

선영

(재훈에게) 내가 불렀어. 오늘 애네 집에서 잘라고.

주희

애 필름 끊기면 아무 말 대잔치 장난 아니예요.

혹했다가 이불킥 한 사람 많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선영

애가 먼저 나랑 섹스하고 싶다 그랬어. 변태 새끼.

재훈에게 각 침을 뱉는 선영.

재훈

세수하자 그랬지…아니 하자고 한 게 아니라…게임을 했는데…

야 나 너랑 안 잘 거거든. 절대로 안 자.

주희

당연히 안 되죠…

재훈

안자. 안자. 안 잔다고. 너는 일단 내 스타일도 아니고…

선영

넌 내 스타일인데?

재훈

어…진짜?

주희

아뇨. 취했다니까요…일단 같이 일어나세요. 제가 택시 잡아 드릴게요.

재훈

저는 어차피 회사에 대리기사를 주차해놔서 차를 부르면…

주희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술집을 나가려는데,

선영이 갑자기 재훈에게 달려들어 볼에 뽀뽀를 한다.

바로 선영은 주희를 껴안고 뽀뽀하려 한다.
필사적으로 막는 주희.

주희
팀장님 애 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재훈이 선영에게 뽀뽀하려고 달려들려 하고 양쪽에서 그걸 막느라고 진땀을 빼는 주희.

주희
이것들이 진짜… 누가 좀 도와주세요!!!

S#31. 아파트 지하 주차장 / 낮

자신의 차 안에서 눈을 뜬 재훈.
주머니에서 이물감을 느끼고 뒤지면 깃털, 마늘, 고추가 나온다.
순간 화들짝 놀란 재훈이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가장 최근 연락은 콜택시와 대리운전으로 그 외에는 아무데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깨끗한 핸드폰.
유일하게 병철에게서 카톡이 하나 와 있는데…….
야 나 다시 사귀다 ㅋㅋㅋㅋ
그리고 바로 밑에 선영의 카톡창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서 확인하는 재훈.
...너 알고 보면 정말 좋은 애 같아.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카톡방을 눌러 선영에게 보낸 문자의 전문을 확인한 재훈의 얼굴이 점차 사색이 되어 간다.

재훈
아오 씨발 가지가지 하네 진짜.

짜증을 내며 고양이 용품을 챙겨 차에서 내리는 재훈.

주희(v)
나 사실 너한테 진짜 고맙다.

S#32. 재훈의 집, 화장실 / 낮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려다가 멈칫하는 재훈.
거칠게 세수하는 재훈.

주희(v)
기억은 안 나지만 전화 받아준 것도 고맙고 같이 술마셔준 것도 고마워.

나 요즘 진짜 집에 들어가기 싫었거든.

S#33. 주희의 집, 안방, 거실 / 낮

안방 문을 열어두고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마무리 중인 선영의 모습.
식탁 앞에 앉아 선영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주희.

주희

너 알고 보면 정말 좋은 애 같아.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뭔 소리야 이게. 고맙다는 거야, 한번 하자는 거야?

선영

좋아하는 여자 있어. 진심이래.

안방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는 선영.

선영

필름 끊기면 여기저기 연락하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
다음날 되면 후회하고.

주희

(핸드폰 건네고) 그래서? 넌 어떤데?

선영

그냥. 보고 있음 현성오빠 일 생각나.

주희

...

선영

오버하지 마. 아무렇지 않으니까.

선영, 아기 용품으로 가득 찬 주희의 집을 둘러본다.
모든 것이 아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집안 풍경.

주희

전에 왔을 때랑 너무 다르지?
치운다고 치우는데 돌아서면 지저분해지고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선영

신랑은? 안 도와줘?

주희

이게 처음에는 도와달라고 해도 손 하나 까딱 안하는 거
여보. 음식물 쓰레기 버릴래? 청소기 돌릴래? 했지.
청소기 돌리더라?

애기 기저귀 갈래? 설거지 할래? 했지.
설거지 하더라고. ...남자들이 그렇지 뭐.

선영

좋아 보이네.
주희
(한숨 짝) 놀리냐?

우쭈쭈 보행기에 앉아 있던 아기를 안아 올리는 주희. 얼굴엔 사랑이 듬뿍 묻어난다.
시간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선영.
현관으로 간 선영을 쫓르르 쫓아가는 주희.

주희
밥 있는데. 정말 안 먹어?
선영
아침 잘 안 먹어.
주희
물 끓이고 있는데 꿀물 타줄까? 금방 되는데 그거라도 마시고 가.
선영
괜찮아. 술도 별로 안 마셨는데 뭘.
주희
너 어제 완전 장난 아니었는데. 정말 하나도 기억 안나?
선영
나 늦었다. 연락할게.
우리 현진이. 이걸로 맛있는 까까 사먹어요.
엄마가 달라 해도 절대로 주면 안 돼?

아기에게 5만 원짜리 두 장을 건네준 선영이 주희의 집을 나선다.

S#34. 사무실 / 낮

이제 막 사무실에 도착한 재훈이 선영의 자리를 확인한다. 비어있다.
그때 오두방정을 떨며 나타난 병철. 오예~ 춤을 추며 좋아한다.

재훈
야씨. 너 때문에 어제... 담배나 피러 가자.

전자담배를 꺼내 피는 병철.

병철
앞으로 금연하기로 했다.
우리 별이가 나 금연하는 조건으로 다시 만나기로 한 거거든.
재훈
바람은 개가 똥인데 조건을 왜 개가 달어...
병철

왜? 너도 이참에 같이 끓자.
재훈
그게 끓는 거냐. 밥 대신 빵이지.
병철
어. 선영씨 안녕.

재훈이 돌아본다. 선영이 서 있다.

선영
안녕하세요?
병철
나 한별이랑 다시 만나요.
선영
(재훈에게) 우리 어제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재훈
...그러게.
병철
그래도 덕분에 우리 좀 친해진 거 같지 않아요?
역시 사람이 같이 술도 좀 마시고 해야...

갑자기 나타난 관수가 병철의 뒤통수를 때린다.

관수
야. 어디서 담배를 퍼. 회사 금연인거 몰라?
병철
아니. (대표 방 가리키며) 여기랑 저기랑 벽 하나 사이인데
비번 걸린 와이파이도 아니고 왜 안 됩니까?
관수
억울하면 니가 회사를 차려.

바로 돌변해서 순순히 관수에게 끌려가는 병철.

선영
저 어제 뭐 실수한 거 없죠?
재훈
어?
선영
아니... 병철씨 태워주고 같이 포장마차 간 데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재훈
그게... 나도 어제는 너무 마셔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재훈(v)
나 개랑 좀 안 맞는 거 같아.
병철(v)

누구? 오선영?

S#35. 설렁탕집 / 낮

식사 중인 재훈과 병철의 모습.

재훈

...

병철

왜? 어제 나 가고 무슨 일 있었어?

재훈

일은 무슨...

앉은 상태로 다리를 달달달 떠는 재훈.

병철

사람 자체가 편안한 느낌은 좀 없지.

그래도 나쁜 애 같진 않던데?

재훈

니가 할 말은 아닌 거 같은데.

너 필름 끊겼냐?

병철

야. 다 기억해. 같이 한강 가서 맥주마시고 어? 노래방 가고.

재훈, 이 새끼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다가

재훈

됐고. 너 당분간 이 근처에서 술 마시지 마라.

특히 족발집 옆에 이자카야.

병철

왜?

재훈

그냥 모르는 게 나아.

너 오늘 헤드폰 스튜디오지?

병철

어. 룩북이랑 동영상 조금.

재훈

그거 그냥 내가 갈게.

병철

간단한 건데.

재훈

그러니까.

오늘 좀 사무실에 있기 싫어서 그래.

S#36. 도로 위, 차 안 / 낮

달리는 쉼보레 올란도.

운전 중인 도운이 블루투스 헤드폰을 끄며

도운

촬영팀이랑 모델은 이미 도착했다는데요?

보조석에 앉아 낮이 나간 재훈의 모습. 뒷좌석에 앉은 선영의 모습.

재훈의 핸드폰 진동이 울리고 문자를 확인하는 재훈.

‘병신’에게서 문자가 와 있다.

응. 원래부터 오션영인데. 너네 팀 이번 주까진 널널하다고 해서.

재훈

하여간 회사가 쪼그만 하니까 체계가 없어요.

추가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사람을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도운에게) 너도 여기서 이러지 말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노량진 가.

효도 해. 공무원 얼마나 좋아.

도운

저 거기서 3년 있었는데요...

턱을 권 채 창밖 풍경을 보는 선영.

마찬가지로 창밖을 보며 한숨을 푹 쉬는 재훈.

S#37. 스튜디오 / 낮

10평정도 되는 작은 스튜디오.

이탈리아인 남자 모델(이하, 이남)이 헤드폰을 끼고 포즈를 취한다.

촬영감독과 조명감독이 보조로 겸하여 한명만 데리고 있는 간소한 규모의 촬영 현장.

재훈과 촬영감독이 의논을 하고 같이 영상을 보고 지시하면,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이남.

조감

조명 좀 같고 가겠습니다.

도운

더우시죠?

이남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쥬. 써울 집값 졸라 비싸.

나 월세. 전세예요?

도운

고시원이요...

잠깐이지만 긴장이 풀리는 촬영장.
재훈이 노트북으로 촬영한 것들을 확인하는데
바로 그때 선영이 다가와

선영
연장은 좀 힘들 것 같다는데요. 예약이 꼭 차 있어서.
재훈
이런 일은 차라리 받지 말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재훈, 힐끔 맨발인 선영을 보고.

재훈
넌 왜 맨발이냐?
선영
남는 게 없어서요.

재훈, 슬리퍼를 툭 벗어던져주는데.

재훈
작아. 발 아파.
선영
아 저는 (괜찮은데) ...
촬영감
지금. 지금 괜찮지 않아?
재훈
잠시만요!
그림자 좀만 더 죽여주실 수 있어요?

선영, 슬리퍼를 신는다. 넉넉하게 남는 슬리퍼.

촬영감
대영아. OO 하나 더 가야될 것 같은데.

하며 조명감독을 쳐다보면 조명기구에 막혀 보조를 쳐다본다.

조감
야. OO 어딴어?

이미 다른 장비를 손에 들고 조명을 깎고 있는 보조.

보조

OO은 차에서 안 내렸는데.
재훈
도윤아. 여기 OO 줘.
도윤
OO이요? 어떻게 생긴 건지 말씀해주시면...
조감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보조
그냥 제가 잠깐...
선영
저 알아요. 제가 다녀올게요.

보조가 키를 던지면 받아서 스튜디오를 빠져 나가는 선영.
재훈, 놀란 얼굴로 그런 선영을 쳐다보는데...

찰감
일단 이것도 하나 가자. 시간도 없는데. 다 못 찍는다.
재훈
(화면에 집중하며) 아, 네.

S#38. 감자탕 집 / 밤

식사 중인 촬영팀과 재훈, 도윤, 선영.

찰감
현장 스텝 경험 있어요? 모니터 설치하는 것도 능숙하고.
여기선 처음 보는 얼굴인 것 같은데.

재훈이 선영을 흘끔.

선영
다른 회사에 있을 때, 작업했던 촬영감독님이랑 친했어요.
찰감
누군데? 말하면 알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보조
남자친구였죠. 그쵸? 왜, 외국인 남자친구 사귀면 그 나라 말 확 느는 것처럼.
선영
지금은 이쪽 일 안하세요.
보조
어? 왜요?
선영
죽었어요.

정적.

보조
사고?
선영
자살이요.

다시 정적.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만 보는데...

찰감
그... 디아이는 내일 회사로 가면 되나?
도운
네. 저녁에 편하실 때 오시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물을 마시는 선영을 보는 재훈.

cut to
식사를 마친 일행이 가게를 하나둘 빠져나간다.
계산대 앞으로 간 선영에게 도운이 슬쩍 다가가

도운
팀장님은 한잔 하실 거 같은데.
집이 어디세요? 태워다 드릴게요.
선영
이거 예산 오버된 거 같은데요.
도운
아, 팀장님이 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은 돈이 안 되니까 사실 잘 말씀드려서 저녁도 거의 안 먹는데...
예전부터 꼬박꼬박 밥도 사주시고 술도 사주시고 하셨어요.

선영, 가게 유리 너머 촬영팀과 웃으며 흡연 중인 재훈을 흘끔.

도운
같은 남자가 봐도 진짜 괜찮은 분이신데.
왜 그런 일을 당하셨나 모르겠어요.
선영
원래 남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는 여자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거든요.

S#39. 오피스텔 쓰레기장 / 밤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선영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쓰레기가 한 가득이다.

S#40. 선영의 집 / 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선영. 치운 티도 안 나는 집 안.
다시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면 아줌마가 서 있다.

아줌마

아래층인데요. 뭐해요 이 시간에.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한번 올라와봤어요.

선영

죄송합니다.

문이 닫히고, 소파로 가서 늘어지는 선영.
밤 9시가 넘은 시간.
소주를 글라스로 마시기 시작하며 TV를 트는 선영.

cut to

빈병이 늘었다.

여전히 술을 마시며 TV만 보고 있는데 선영의 핸드폰이 울린다.

뭐해?

자니?

밤 11시를 넘은 시간.

술 적당히 하시고 들어가세요.

선영이 문자하면 바로 울리는 선영의 핸드폰.

술 안 마셔. 커피 한잔 할래?

할 얘기도 있고.

S#41. 카페 / 새벽

선영이 2층에 위치한 카페 안으로 들어가면,
가게 끝 쪽, 고개를 푹 숙인 채 바에 혼자 앉아 있는 재훈이 있다.
선영과 재훈 외, 손님은 없다.
옆에 가서 서면 고개를 들어 선영을 쳐다보는 재훈. 눈이 풀려있다.

선영

...

재훈

안 마신다고 했지 안 마셨다고 하지 않았어.

선영
이런 식으로 매일 마시면 술이 깨긴 해요?
재훈
맨 정신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꼭 빠는 재훈.

선영
일어나요. 택시 잡아 줄게요.
재훈
...
선영
(생각하고) 집에 갈래요? 여기서 아침까지 있을래요?
재훈
...너 나 좋아하냐?
선영
...
재훈
아님 말고.

테이블 위에 엎드리는 재훈.
선영,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런 재훈을 본다.
두 사람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인다.

재훈
모아둔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구했어. 전세지만.
거기서 같이 석 달 정도 살았어.
선영
...
재훈
상견례도 하고 청첩장도 찍고 하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
야근을 매일 했으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버한 거지.
선영
...
재훈
항상 바쁘기만 한 게 미안해서 안하던 짓을 좀 했어.
말도 없이 반차를 썼거든.

S#42. 재훈의 집 / 낮 (과거회상)

꽃과 케이크, 선물상자를 든 재훈이 조용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거실에 TV가 켜져 있다. 홈쇼핑 광고가 나오고 있다.

어디 나갔나? 집안을 살피는데 식탁 위에 사용한 수저와 그릇이 두 짝씩 나와 있다.
문이 열려 있는 방과 닫힌 방을 차례로 열어 확인하고 화장실도 한번 보고... 자연스레 안방 문의 손잡이를 돌리는데... 잠겨 있다.

S#43. 카페 / 새벽

엎드린 재훈.

재훈
TV 소리가 너무 컸어.

INSERT1)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누르는데 잘 안되자 리모컨을 던져 TV를 부숴버리는 재훈. 다시 안방 앞으로 가서 문을 열어보려 안간힘을 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들을 들고 와서 손잡이를 부수기 시작하는 재훈. 그러다 온몸으로 문을 부수기 시작한다. 문짝에 피가 묻어나기 시작한다.

재훈
사실 기억이 잘 안나.

INSERT2)

다시 망치를 들고 나타난 재훈이 안방의 손잡이를 내리친다.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며 반동으로 슬쩍 열리는 문짝.
고뇌에 빠진 남녀의 모습이 보인다.

엎드린 재훈.

재훈
바람을 뿔다고 생각했지.
사실은 그 반대였지만.

INSERT3)

카메라가 남자를 때리는 재훈의 얼굴을 따라간다. 말리는 그녀.
땀에 절은 분노에 찬 재훈의 얼굴이 느리게 아주 느리게 절망에서 슬픔으로 바뀐다.

재훈
딱 봐도... 개가 혼자 좋아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
선영
...
재훈
뭐라 그랬더라.

여자는 자길 더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하다는데
그게 나라고 생각했다 했나.

선영, 손을 뺀어 엮드려 있던 재훈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재훈, 머리를 들고 똑바로 앉아 선영을 쳐다본다.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는 두 사람.
이번에는 재훈이 손을 뺀다.
가만히 선영의 뺨을 쓰다듬는 손.
금방이라도 키스할 것 같은 분위기...
철썩! 선영이 재훈의 따귀를 때린다.
재훈을 남겨두고 가버리는 선영.

재훈
야! 잠깐만!!!...

술기운 때문에 똑바로 걷지 못하고 우당탕탕 넘어지는 재훈.
다시 벌떡 일어나는가 싶더니 반대편으로 돌진해서 나동그라지는 재훈.
선영은 잠시 그런 재훈을 쳐다봤다가 계단을 내려가 버린다.

S#44. 사무실, 회의실 / 낮

비주얼라이징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
재훈의 빈자리를 힐끔 보는 선영.

경은
그럼 저희가 만든 광고가 TV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관수
유튜브에 먼저 띄우고 반응이 좋으면 시리즈로 가는데
개 중 제일 괜찮은 게 방송을 타는 거지.

미영과 병철이 오오오...호응하는데.

관수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되겠지만.

테이블 한가운데에 놓인 콘돔 애니몰.

관수
우리가 호랑이 편을 맡게 됐어.

애니물은 패션 콘돔으로 총 세 종류.
호랑이, 얼룩말, 고래 무늬가 콘돔 자체에 새겨져 있다.

관수

이번에 새로 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리프레시하자는 의미에서
다음 주 토요일에 단합대회도 한번 가져 볼까 하는데. 강요하는 건 아니고.

병철

토요일? 이번 주?

관수

어.

급격히 냉랭해지는 분위기.

미영

...어디로 가는데요?

관수

청계산. 좋지? 하하하하하!

S#45. 사무실 / 낮

사무실 풍경이 보인다. 쉼 새 없이 들리는 키보드 소리.

미친 거 아니에요? 무슨 등산이야.

요즘 퇴근해도 집에 안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갱년기 온 거 아니에요?

대표님 30대 후반이잖아요.

요즘엔 좀 빠르대.

콘돔이라니! 광고계 기피 1대상 콘돔 광고라니!

기획팀. 당신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콘돔으로 뭘 해요 도대체.

섹스.

고추 가리개.

미친.

그때 채팅창에 관수가 룰루랄라 춤을 추는 이모티콘을 띄운다.

비주얼라이징 파이팅! 단톡방이 요즘 너무 조용한 듯! 저는 이만 미팅이 있어서!

관수가 방에서 나와 소리 없이 파이팅을 외치며 사무실을 걸어 나가는데.

아나 같은 방인 줄.

소름.

조심해요. 전에 누가 실수한 적 있지 않아요?

밥 먹으러 갑시다.

우르르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재훈의 빈 옆자리.

선영이 문자를 보낸다.

출근 안하세요?

바로 그때 지나가던 경은을 붙잡는 선영.

선영

팀장님께서 어제 술을 좀 많이 드셨거든요.
아무래도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 깨워야 될 것 같아서요.

경은

혹시 술 같이 드신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되신 거래요?

선영

그건 아닌데. 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경은

어디서 대차게 굴렀는지 팔이 부러져서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 가고 난리도 아니었다던데요?...

선영

...

재훈과 나눈 카톡 문자를 확인하면 1은 어느 새 사라지고 없다.

답장도 없다.

S#46. 사무실 / 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퇴근 인사하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선영이 핸드폰을 확인한다.

재훈은 끝내 출근하지 않았고 답장도 오지 않았다.

빈 커피 잔을 확인한 선영, 한잔 더 마시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인기척을 느끼고 입구를 쳐다보면 재훈이다.

선영

어젠 잘 ...들어갔어요?

왼팔에 깁스를 한 채 다른 팔로 외투를 든 재훈.

선영

저는 잔업이 있어서 좀 더 있으려고요. 커피 마실 건데 한잔 타 드릴까요?

대꾸 없이 자신의 자리로 가는 재훈의 반응에 무안해진 선영.

포기하고 탕비실로 향하는 내내 재훈을 의식하는 선영.

자신의 자리로 가서 짐을 챙긴 재훈이 사무실을 나선다.

재훈

어젠 미안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나도 이번 일로 깨달은 게 많아. 이제 그만하고 정신 차리려고.

스르륵 외투가 떨어지며 반깁스한 오른팔이 드러난다.
반깁스한 팔로 외투를 집으려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재훈.
선영이 다가와 외투를 집어서 재훈의 오른팔에 걸쳐준다.

선영

배고픈데. 밥 먹을래요?

S#47. 고기 집 / 밥

고기 집 풍경.
불판 위에 고기가 올라가고...

재훈

여기 소주 한 병만 주세요.

선영

주지 마세요.

재훈

그냥 주세요.

알바가 술을 가져다준다.
보란 듯이 소주를 까는 재훈. 잔을 가득 채워 자신의 앞에 하나 선영의 앞에 하나 둔다.
니 맘대로 해라 외투를 벗는 선영.
순간적으로 웃웃이 한쪽으로 쏠려 홀렁 내려간다.
아무렇지 않게 옷매무새를 바로 하는 선영.

재훈

너는 옷이 그런 것 밖에 없더라.

선영

예쁘잖아요.

재훈

그놈에 자기만족...

선영

여자가 주체적으로 남자를 유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요.
예뻐 보여서 입는다. 남자들 보라고 입는 거 아니다. 시선강간?
난 그게 오히려 여자들을 무시하는 거 같은데.

재훈

...

선영

짤까요?

선영이 잔을 들어 내밀면 자신의 잔을 갖다 대는 재훈.
원샷하는 두 사람.

S#48. 횃집 / 밤

힐끔거리는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

선영

영화 300처럼 근육질 남자들이 때로 나오는데 팬티에 호랑이 무늬가 새겨져 있는 거야.
거기 영화에서처럼 스파르타! 소리치면서 발로 가슴팍을 뺨 차는데
구덩이 안에 떨어진 남자가 공중으로 다시 튀어 오르는 거지.
거기에 덤블링이 있었거든. 그 다음 폴샷 짹 빠지면서
애니멀 콘돔 이미지컷이 딱! ...어때?

재훈

...

선영

팬티랑 덤블링이 콘돔을 상징하는 거야.
남자가 상징하는 게 정액이고. 구덩이가 여자의...

재훈

(말 자르며)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 만요.

테이블 위에 이제 막 탄 소주 병 옆에 새 소주병이 놓인다.

제법 취한 모습의 두 사람. 짤하고 원샷 한 뒤 바로 물을 마시는 선영. 짹 찬 물통.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재훈.

cut to

매운탕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재훈

넌 결혼 안 하나?

선영

하고 싶는데 못 하는 거야.
아무도 못 믿겠으니까.

재훈

...

선영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마음 맞는 친구도 자기 인생이 있고
내 편이 없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긴 한데...

재훈

자살했다는 전 남자친구, 못 잊어서 그래?

선영을 보는 재훈. 재훈을 보는 선영.

선영

아 그거?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 애초에 존재한 적도 없어.
이것저것 캐묻지 않아서 편하더라.

재훈

...아무한테도 못한 얘기야.

선영

얘기해달라고 한 적 없어.

재훈

미친년.

선영

...너는 뭐 제정신이라서 그러고 있니?

재훈

함부로 말하지 마.

선영

한심한 새끼.

가게를 나가버리는 선영.

S#49. 회사 앞 / 밤

선영이 가방을 챙겨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데.

반대편에서 재훈이 다가온다. 피해 가려는데 붙잡는 재훈.

선영

왜 이래!

뿌리치면 다시 붙잡는 재훈.

재훈

니 말이 맞아.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
너 나한테 왜 그랬냐?

선영

내가 뭘?

재훈

술 몰래 버린 거 다 알아. 전에도. 이번에도.

INSERT1) S#29. 포장마차. ‘나 화장실’ 하며 선영이 일어난다. 혼자 남은 재훈이 물컵이 보이지 않아서 선영의 앞에 놓여 있던 물을 꿀꺽 삼킨다. 이상한 물맛에 당황하는 재훈의 얼굴. 테이블 위, 물통의 물이 짝 차 있다. 빈 술병들. 테이블 아래, 선영의 의자 바닥만 젖어 있다.

재훈

너 다 기억하잖아. 일부러 그런 거잖아.

INSERT2) S#30. 재훈을 껴안고 볼 뽀뽀하는 선영.

재훈

왜? 꿀에 상사라고 직장 생활 좀 편하게 해보려고 그랬냐?

좋아하지도 않는다면 나한테 그런 이유가 뭐야?

선영

재수 없어서.

재훈

...

선영

같은 여자가 봐도 쪽팔리는 쌍년 하나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꿀이 꼭

끝까지 주인보고 꼬리 흔드는 복날 개 같아서 그랬다 왜?

선영이 뿌리치고 걸어가는데.

재훈

가슴골에 짧은 치마 허벅지 드러내면서

결혼 못하고 나이만 먹고 있으면 남자들은 다 쉽게 봐.

술 취한 척 안기는데 뒤틀 없을 거 같고 잘하면 한번 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거 인기 많은 줄 착각하고 있는 모습 보면 불쌍하고 짝해.

멈춰 서서 뺨 돌아보는 선영.

선영

야 너도 노총각이야. 딱 봐도 아저씨야. 나이는 나 혼자 먹는 줄 알아?

재훈

남자랑 여자가 같냐??

선영

와인도 제대로 보관 안하면 상하는 건 알지?

선영, 지그시 쳐다봐주고 돌아서는데

재훈

너 같은 걸레랑 내가 어떻게 같아??

다시 돌아보고 빠른 걸음으로 재훈에게 다가온 선영이 한 대 치려는 듯 손을 든다.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재훈.

선영

첫 번째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순간부터 듣기 시작했던 말이 걸레였어. 왜???!!!

재훈

...

선영

니들한테는 섹스 못한 첫사랑 그 쌍년 빼고는 다 걸레니까!!!!!!

선영, 다시 책 뒤돌아서 가버린다.

S#50. 선영의 집 / 낮

잠에서 막 깬 부스스한 모습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는 선영.
재훈으로부터 엄청나게 와 있는 부재중 전화.

선영

(중얼) 미친놈.

출근 준비를 시작하는 선영.

S#51. 엘리베이터 / 낮

엘리베이터 안, 땡!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나는 재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들어오자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난다.
핸드폰을 확인하고 히이이익!...선영에게만 전화를 엄청나게 해놨다.
사람들의 눈치에 그제야 맨발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위를 살피는 재훈.
땡! 소리에 1층에서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입구에 가지런히 놓인 재훈의 신발이 보인다.

윤주(v)

이 팀장님. 요 며칠 되게 조용하지 않아요?

S#52. 기사식당 / 낮

같은 식당에서 식사중인 선영, 미영, 윤주, 경은 여자 팀과 재훈, 병철, 관수 남자 팀.
식당의 끝과 끝에 자리 잡고 앉은 두 팀.

경은

그러고 보니 통 연락이 없으시네요.

미영

술은 맨날 마시는 거 같은데. 주사가 바뀌었나?

윤주

나 양팔에 깁스한 사람 교통사고 환자 말고 진짜 참 봤잖아요.

하나라도 풀어서 다행이지 볼 때마다 웃겨가지고……

미영

(선영에게) 연락 와?

절레절레, 식사하는 선영.

cut to

재훈 테이블.

제대로 해장 중인 재훈의 모습을 뵈는 병철과 관수.

병철

너 요즘 이상하다.

재훈

내가 뭘.

병철

아니. 수정이 얘기가 전혀 없잖아.

관수

재가 했냐? 니가 했지.

병철

설마… 다시 만나?

재훈

내가 걔 왜 만나?

이상한데…? 가웃하는 병철.

cut to

선영 테이블.

윤주

아 연락 하니까 생각난 건데. 옥수동 상간녀 얘기 알아요? 요즘 인터넷에서 난린데
유부남 상사 꼬시고 그 와이프가 임신부였는데 자기들 같이 있는 사진 계속 보내고
연락하고 이혼하라고 요구했다가…결국 와이프가 정신병원에 들어갔대요.

정신 줄을 아예 놔버린 거지.

더 대박인건 그 상간녀가 신혼생활 중이었다는 거.

경은

헐…

미영

...애는?

윤주

유산됐다고 그러는 거 같던데?

선영, 시시콜콜한 치정 얘기에 별 관심이 없다.

cut to

재훈 테이블.

관수

너 만약 개가 다시 만나자면 어떡할 건데?

재훈

...뭘 어떡해. 이미 다 끝났는데.

그럴 일도 없고 마음도 없다.

병철

어?

재훈

뭐? 또 뭐?

병철

졸라 진짜 같은데...?

관수

헤어진 사람 다시 만나는 거 아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어긋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

애초에 의지가 그것밖에 안됐단 소리지 사랑은 타이밍이라느니 다 헛소리라 이거야.

스무 살 첫사랑을 라이벌, 돈, 군대 때문에 못 만났다면

서른 살에 갓 만나도 바람, 부모님 반대, 장거리로 헤어질 거라는 거지.

재훈

형. 형수랑 만나고 헤어지고 한 스무 번쯤 되지 않아?

관수

(병철 향해) ...넌? 잘 만나고 있냐?

병철

(심각) 아무래도 이번엔 진짜로 헤어질 거 같아요.

재훈

또?

병철

아니. 자기 머리 큰 거 같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했는데 자꾸 솔직하게 말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적당하다 했더니 작지 않다는 얘기 같은데 큰 걸 돌려서 말하는 거냐고 묻더라?

큰 건 아니라고 했더니 작은 것도 아니지 않냐는 거야.

재훈

...

관수

...

병철

무슨 돌림노래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서
대가리가 주먹만 하진 않지 했더니... 그 뒤로 연락이 없다.
대가리가 (주먹 쥐며) 이만하면 그게 사람이냐?

관수

...년 결혼 못하겠다.

재훈, 무심결에 고개를 돌렸다가. 선영을 본다.

애써 무시해보려 하지만 어느 새 시선은 다시 선영에게로 가 있다.

복잡한 심경이 고스란히 떠오르는 재훈의 얼굴.

S#53. 선영의 집 / 밤

선영이 집에 와서 씻고, 간단하게 업무를 보고, TV를 보는 와중에도, 계속 울리는 핸드폰.

아예 충전기를 꽂아 놔다.

어느 땐 짧게 울렸다 길게 울렸다 쉬지 않는 핸드폰.

cut to

누워 잠을 자던 선영이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다.

받기도 전에 이미 누군지 알고 있는 모습.

선영

너 진짜 나한테 왜 이러니.

S#54. 지하철 / 밤

재훈, 만취 상태로 핸드폰을 잡고 있다.

재훈

나도 모르겠다 씨발.

넌 왜 자꾸 받아주는 건데.

cut to

선영의 집.

선영

...

cut to

지하철, 재훈.

재훈

...

cut to
선영의 집.

선영

너 보면 꼭 그때 나 보는 거 같거든.

전화가 끊어진 것 같다. 잠시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였다가 스르르 눈을 감는 선영.

cut to
지하철,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만세 자세로 잠이 든 재훈.
화면 블랙되며 찰칵! 누군가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소리가 난다.

S#55. 청계산, 족구장 / 낮

피구 중인 비주얼라이징 식구들의 모습이 보인다.
시작 전, 다들 똥 씹은 표정으로 들리지 않게 아 졸라 하기 싫어 한마디씩 하더니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까르르 웃음이 터지며 게임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남녀가 한데 섞여 편을 갈라 시합을 하는데 재훈이 던진 공이 선영의 머리를 강타한다.
미안해하는 재훈.
괜찮다던 선영은 재훈이 밖에 있던 안에 있던 재훈만 맞춘다.
점점 열이 오른 듯 재훈도 선영만 조준한다.

미영

너네 뭐하니? 야 재네 공, 주지 마!

cut to
남자들끼리 족구시합이 열렸다. 구경하는 여자들.
날아다니는 재훈. 선영의 시선이 시합에 몰두하고 있는 재훈을 쫓는다. 재훈이 무심결에 선영을 쳐다
본다. 선영은 재훈을 쳐다보지 않고 있다.

cut to
단체사진을 찍기 위해 사람들이 한 데 모인다.
선영은 발목이 조금 불편해 보인다. 그 모습을 캐치하는 재훈.
병철이 나가서 핸드폰을 들이대자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

미영

병철씨도 같이 찍어야 되는 거 아냐? 그러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부탁하자.

병철
전 괜찮아요!

단체사진을 찍는 척 셀카를 촬영하는 병철.

S#56. 청계산, 식당 / 낮

옹기종기 모여서 식사 중인 사람들.

경은
진짜로 산 탄대요?

미영
미친놈.

윤주
이게 무슨 단합이에요. 때려치울까 봐요 진짜.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미영
혼자만 신났네 아주.

테이블 끝. 미친 듯이 하하하하하! 웃고 있는 관수의 모습.

서로에게 조금의 눈길도 주지 않는 재훈과 선영의 모습.

각자의 무리에 속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S#57. 청계산, 등산로 / 오후

등산 중인 비주얼라이징 직원들.

조금 건던 선영이 헐떡거린다.

미영
아깐 날아다니더니 힘 다 쓴 모양이네.
천천히 와. 빨리 간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선영
네.

앞서나가는 직원들. 천천히 그 뒤를 따르는 선영.

cut to

선영의 시야에 회사 직원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계속 걷다가 텅텅 주저앉는 선영.

발목을 확인해보는데.

속- 선영의 머리 위로 그늘이 진다.

재훈
착각하지 마.
너무 썩까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그러는 거뿐이야.

선영
...그거 알아?
너 거짓말 진짜 못해.

재훈
그러는 너는?

선영
나는 선수지.

재훈이 헛웃음을 터뜨린다. 손을 내미는 재훈. 그 손을 잡는 선영.

cut to

선영이 걷고 뒤에서 재훈이 선영의 등을 밀고 있다.

선영
뭐야 이게.

재훈
내가 앞으로 가? 나랑 손잡고 싶냐?

선영
미쳤나봐 진짜.

조금 걷다가.

재훈
고맙다. 그 얘기. 사람들에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

선영
너 팔만 그렇게 안됐어도 얘기 했어.

재훈
...

선영
미안해. 그날 그냥 그렇게 가버려서.

재훈
나도. 미안해. 그런 식으로 말해서.

숲의 모습. 고요하다.
한참을 말없이 걷던 두 사람.

선영
나도...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진짜였어.

차라리 죽었다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 있거든.

재훈

...촬영감독?

선영

헤어지자는 말도 없었어.

그냥 연락이 안 되고 그게 끝이었지.

알아보니 일은 계속 나가고 있었고.

재훈

...

선영

너무 힘들어서 매일 술 마시고. 매달리고. 스토키 소리까지 듣고.

반쯤 미쳐서 친구들 붙잡고 답도 없는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독한 새끼. 답장 한번을 안 하더라고.

정신을 차리니까 내 옆에 가족 말고 친구는 딱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아무리 그만두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었는데

재훈

...

선영

누가 그러더라.

연락 안하면 석 달 내로 반드시 연락 온다고.

이 악물고 버텼는데.

딱 한 달쯤 지나니까 진짜로 전화가 오길래 안 받았어.

나중엔 매달리길래 똑같이 무시해줬지.

재훈

왜?

...힘들었다면서.

선영

몰라. 그냥 싫었어.

재훈

...

선영

가끔은 궁금해. 뭐하고 사는지. 결혼은 했는지. 그 사람도 이렇게 내 생각 할지.

선영이 돌아보면 등에서 손을 떼고 앞으로 먼저 걸어 나가는 재훈.

재훈

다 왔어. 나머지는 니가 알아서 올라와.

성큼성큼 앞서나가는 재훈.

S#58. 청계산, 정상 / 늦은 오후

정상에 올라가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재훈과 선영을 부른다.

미영

뭐야. 둘이 연애해? 빨리빨리 좀 다녀.

선영

아니예요 그런 거.

비주얼라이징 직원들이 다 같이 모여 사진을 찍는다.

셀카봉을 건네받는 병철.

병철

이런 게 있었음 진작 좀 주시지.

셀카봉으로 앞쪽으로 나와 직원들을 배경에 걸어 사진을 촬영하는 병철.

병철

자 찍습니다. 하나, 둘…!

포커스가 병철에게 맞아 다른 직원들의 얼굴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S#59. 민속주점 / 밤

화기애애한 분위기. 알딸딸, 다들 기분 좋게 취했다.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나 선창하는 관수.

관수

성!

다같이

성공과!

관수

행!

다같이

행복을!

관수

위!

다같이

위하여!

관수

자 오늘은 마시고 죽자!!!

건배하는 직원들.

미영
혼자 죽어 제발.

선영도 술을 쪽 들이키는데.
건너편에서 재훈이 술 마시는 선영을 쳐다본다.

cut to
쏘맥을 말고.

cut to
술자리 게임이 벌어진다.

cut to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는 사람들. 점점 술이 딱이 되어가는 사람들의 변화가 한 눈에도 확확 눈에 들어온다.

cut to
원샷한 후 잔을 탁 내려놓은 미영.

미영
야이 서관수 이 씹새끼야. 맨날 놀러나 쳐 땡길 궁리나 하지 말고
이럴 돈으로 애들 월급이나 올려줘 씨팔놈아.

병철
그래. 미친놈아.
내가 술이 먹고 싶으면 집구석에서 치맥을 했지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이니 개소리나 씨부리고 말이야.
내가 최저시급 딱 만원 찍는 순간 여기 때려치우고 편의점 알바 한다.

관수
...

병철
(눈치) 그만할까요? 야자타임.

관수
아냐. 계속해.

병철
...할 줄 알았냐 병신아! 그러니까 니가 마누라한테 쳐 맞고 살지 등신 새끼.

관수의 핸드폰 벨이 울린다.
관수의 팔을 덩석 잡는 재훈.

재훈

형 지금 너무 많이 취한 거 같은데.

관수

(뿌리치며) 야 나 하나도 안 취했거든? 여보세요.

(핸드폰을 거꾸로 잡은 걸 확인하고 바로 잡은 뒤) 어. 왜.

좌중, 큰일났다는 표정.

관수

(헛웃음) 그래. 술 마신다.

니가 뭔데 내가 너한테 내 일상을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까지 말아야 돼.

재훈

(다시 관수 팔 잡으며) 형수야 형.

관수

(뿌리치며) 100일 휴가 나올 때까지

군대 간 걸 우리 부모님도 몰랐던 사람이야 내가!!!

cut to

관수가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나자 움찔하는 직원들.

관수

아니. 애가 감기라네. 카드 주고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들 더 놀아.

재훈과 병철을 포함한 일부 남자 직원들이 관수를 배웅하는데. 대표님. 우세요?

선영

자제분이 많이 어린가 보네요.

미영

중 3이야. 중 2병에 걸렸다는 얘기가 있지.

잊을만하면 회사에 나와서 대기업 회장 아들 코스프레를 하거든.

도운

사모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신가 봐요. 대표님께서 꿈쩍도 못하시는 걸 보면.

미영

여기 회사랑 집이랑 차, 전부 다 여자 쪽 집에서 해준 거니까.

저래 봐도 서로 첫사랑이야.

중학교 땡가 고등학교 땡가 만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했거든.

도운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요.

경은

근데 정말 저희끼리 계속 놀아도 되는 거예요?

윤주

분위기 이상해진 거 같은데.

S#60. 노래방 안 / 새벽

방을 나누어 클럽 수준으로 춤을 추며 노래하는 사람들.
모두 다 취해있고 한껏 업된 상태임을 한 눈에도 알 수 있다.
최신 가요에 맞춰 섹시댄스를 추는 미영이 좌중을 압도한다.
완벽하게 속사포 랩을 선보여서 걸 크러시의 정점을 찍는 경은.
저마다 매력을 선보이는 비주얼라이징 식구들.

S#61. 노래방 복도 / 새벽

재훈이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며 선영을 찾고 있다. 어디에서도 그녀를 찾을 수가 없다.
전화하자 방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미영이 전화를 대신 받는다.
복도 끝 화장실 앞으로 가서 선영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다.

S#62. 노래방 앞 / 새벽

재훈이 노래방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피니,
바로 옆쪽 골목 안에 선영이 웅크리고 앉아 있다.

선영

담배 좀 있어?

재훈

(꺼내 건네며) 버릇 나오네.

선영

끊었어. 그 사람 부모님이 담배 피는 여자 싫어한다고 해서...

그랬었는데...

재훈

...

선영

야 나 너무 마셨다. 취했어. 큰일 났네.

재훈

그만해. 또 시작이냐?

선영

나 진짜로 취하면 안 되는데...

재훈

약 사올 테니까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벌떡 일어난 선영이 도로로 달려간다.

재훈

야! 야!!!

식겁해서 달려가는 재훈.

하수구 바로 앞에서 멈춰선 선영이 무릎을 꿇고 오바이트를 시작한다.

가까이 가서 등을 두드려주는 재훈.

선영

나 취했어.

재훈

그래. 너 취했어.

선영

너 취했어.

재훈

그래. 나도 취했어.

벌떡 일어난 선영이 도로가로 달려간다.

차에 치일 뻔한 선영을 아슬아슬하게 끌어당기는 재훈.

재훈

(폭발) 이 여자가 미쳤나 진짜. 뭐해 지금?

선영

(뿌리치며) 응? 이렇게 좀 해주면. 남녀 간에 스킨십도 생기고. 응?

설레고 막. 응? 남자, 여자 이러고 있을 때가 젤 재밌어!

막상 연애하면 지루하고 괴로운 일투성이지...

라고 말하며 다시 도로로 나가려는 선영을 다시 붙드는 재훈.

재훈

너 일부러 이러지 지금?

선영

나 솔직히 조금 진짜 요만~큼 궁금했다.

재훈

뭐가?

선영

그때 키스했으면 어땠을까?

재훈

...아 진짜 이 기집애가 취한 거야 취한 척 하는 거야?

바로 그때, 혹 다가와 재훈의 입술에 뽀뽀하는 선영.

싱긋 웃으며 재훈을 올려다보는 선영.

선영

좋은데? 의외로 너무 좋은데?

빙글 도는 선영, 다시 도로로 나간다.
재훈이 손을 뺀어 선영을 다시 붙잡아 키스한다.

S#63. 모텔 / 새벽

서로 뒤엎켜 방안으로 들어오는 재훈과 선영.
차례로 옷을 벗으며 스킨십 하는 두 사람.

재훈
너 나 좋아하냐?
선영
아니.
재훈
너 나 좋아하지?
선영
아니.
재훈
너 나 좋아하잖아.
선영
안 좋아하는데?

순간 멈칫하고 선영을 붙든 채 얼굴을 빤히 보는 재훈.

재훈
진짜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선영, 웃는다. 재밌어 죽겠다는 듯이.
선영을 침대에 눕힌 재훈.

재훈
나도 너 안 좋아해.
선영
...
재훈
니가 너무 싫다.

내뱉는 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눈빛으로 선영을 바라보는 재훈.
선영이 먼저 재훈에게 키스한다.
점점 깊어지는 관계.

cut to

서로 껴안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재훈과 선영.

선영

나 원래 누가 옆에 있으면 잘 못자거든. 자취를 오래해서 그런가.
어느 순간 신경 쓰이고 불편해서 꼭 밤을 새게 되더라.

재훈

문제가 많은 여자네...

선영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재훈

예전에 오랜만에 집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김치찌개를 만들어주셨는데 정말 맛있었어.
가끔 생각날 때마다 서울에서 맛집이라는 데는 다 가봤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
내가 매운 걸 진짜 못 먹거든.

어느 새 자고 있는 선영.

가만히 그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같이 잠드는 재훈.

S#64. 모텔 / 아침

눈을 뜬 선영.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정신이 번쩍 든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하며 얼른 옷을 찾아 차례로 입는데 아무리 찾아도 팬티가 없다.

재훈이 뒤척이자 깜짝 놀란 선영이 대충 바지를 입고 황급하게 방을 빠져 나간다.

선영이 방을 나가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재훈.

등에 선영의 팬티임을 알 수 있는 여자 팬티가 붙어있다. 떼어내서 옆으로 던지는데.

재훈, 화가 난 것처럼도 보이고 상처받은 것처럼도 보인다. 슬픈 것도 같다.

S#65. 주희의 집, 현관 / 낮

주희가 문을 열면, 문 앞에 선영이 서 있다.

선영

나 택시비 좀 빌려줄래? ...속옷도 좀...

S#66. 주희의 집, 거실 / 낮

혼자서 잘 놓고 있는 현진이. 귀엽다.

차를 마시며 대화중인 선영과 주희.

선영

노래방 이후로 기억이 안나.
정말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주희

그럼 완전 강간이잖아. 범죄라고.

선영

아냐... 모텔에 딱 들어갔을 때부터 기억이 나.
그때라도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있는 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주희

잘됐네. 둘이 만나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선영

다 큰 남녀가 술 먹고 실수 한 거야. 그냥 그거야.
의미부여할 필요 없어.

주희

좋아하게 된 거지? 그 사람?

선영

그냥. 처음엔 힘들어하는 걔 보고 있으면
예전에 내가 생각나서 도저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

왼쪽 손목을 가볍게 잡고 있는 선영의 오른 손.

선영

잊지 못한다는 그 여자와 재회하든지 다른 누군가를 만나든지
개가 빨리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좋아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리가 없잖아.

주희

무서운 거지? 정말로 그렇게 될까봐.

선영

아냐.

주희

이 멍청한 년아.
세상에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바보가 어딴어?

선영

아니. 난 개가 여자라도 그랬을 거야. 누구라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옛날의 나를 떠올렸을
테니까. 개가 남자라는 이유로 내가 걔 좋아한다는 건 너무 단순하지 않아?

주희

누굴 좋아한다는 건 원래 단순한 거야.
나이 먹을수록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아지는 것뿐이지.

선영

...

누그러지는 선영과 우는 현진이를 달래는 주희.

주희

무더진다는 건 괜찮은 거랑 달라.

사실 포기하는 거니까.

선영

...

주희

나는 니가 현성 오빠 때문에 그만큼 아팠으면 됐다고 생각해.

선영

너는. 여기서 개가 왜 나와...

주희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 일도 있어.

아니.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아.

다 착각이지.

S#67. 사무실 / 해질녘

선영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다. 선영의 자리에 짐이며 핸드폰이 놓여 있다.

핸드폰부터 켜고 짐을 하나둘 챙기는데 사무실로 들어오던 재훈과 딱 마주친다.

선영

어? 일요일인데...

재훈

다음 주 촬영이잖아. 준비할게 많아.

선영

전 미영 선배가 짐을 회사에 뒀다고 하셔서요...

선영의 존댓말에 반응하고 쳐다보는 재훈. 알 수 없는 표정.

선영이 힐끔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재훈에게서 문자와 전화가 와 있다.

너 어디야.

술이 안 깬다.

자냐?

일어나면 연락해라.

선영

(우물쭈물) ...저기 이번 일은...

재훈

누구나? 나 모텔에 데려다 놓은 게. 병철이야?

선영

네?

재훈

어제 술을 너무 마셔서. 노래방에 들어간 이후로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

선영

아... 저도 눈뜨니까 친구 집이더라고요... 아마도 필름이 끊겼나 봐요.

짧은 침묵이 흐르고.

선영

전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재훈

...그래. 내일 보자.

자리에 앉아 모니터에 집중하는 재훈.

선영, 꾸벅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간다.

계속 키보드를 두드리며 모니터에 집중하는 재훈.

타다닥타다닥타다다다다다다.....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무실을 나가는 재훈.

S#68. 회사 앞 / 해질녘

건물 밖으로 뛰쳐나온 재훈이 좌우를 살핀다. 선영은 이미 가고 없다.

허탈해져서 우두커니 서 있는데 재훈의 핸드폰이 짧게 울린다.

핸드폰을 확인하는 재훈.

뭐해?

저장되지 않은 번호.

동요하는 재훈의 표정.

S#69. 선영의 집 / 밤

제법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던 선영의 집. 쓰레기들을 한쪽으로 밀어냈다.

컴퓨터 앞에 앉은 선영, 동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쓰레기 배출 스티커를 발급받고.

cut to

SNS를 뒤지기 시작하는 선영.

병철의 SNS를 보니, 청계산에서 단체사진을 찍는 척 셀카를 찍고 포커스를 날린 사진들만 잔뜩 올려놨다. 댓글에서 회사사람들의 비난이 거세다.

그러다 자신과 재훈이 함께 찍힌 사진을 발견하는 선영.

뒤늦게 같이 정상에 올라왔을 때 찍힌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즐거운 듯 웃고 있다.

그 순간 짧게 울리는 핸드폰. 시간을 확인하고 혹시 재훈일까 기대하는 선영.

‘엄지발가락’에게서 문자가 왔다.

잘 지내냐?

바로 차단하는 선영.

cut to

핸드폰을 집어 드는 선영.

문자를 쓰기 시작하는 선영.

할 말 있는데 잠깐

라고 썼다가 지우고 결심한 듯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조금 가다가 상대가 전화를 받는데.

선영

저기 난데… 잠깐 통화 좀 할 수 있어?

만날 수 있으면 더 좋고.

여자 목소리(v)

…누구세요?

선영

(번호 확인하고) 이재훈씨 핸드폰 아닌가요?

여자 목소리(v)

맞아요. 오빠 잠깐 화장실 갔는데…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선영

아. 이 팀장님 직장 동료예요. 일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
내일 회사에서 말씀드려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전해주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잠깐 정신이 없는 눈치의 선영.

직감적으로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선영.

그때 딱, 병철의 친구 목록에 재훈이 보여서 SNS를 타고 들어가면…

여자와 찍은 사진이 한 가득 있다.

축하메시지도 가득한데. 파혼하기 전의 흔적들로 보인다.

여자의 이름은 수정이다.

S#70. 재훈의 집, 거실 / 밤

선영의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수정.

재훈이 화장실에서 나오면 식탁 앞에 앉아 있던 수정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수정

비밀번호가 그대로일 줄은 몰랐지 나는.

청소 좀 하고 살지. 저건 또 뭐고? 고양이 키워?

말없이 거실을 청소하는 재훈.

수정

요즘엔 술 안마시나봐. 연락도 없고.

재훈의 등 뒤로 다가가 슬며시 끌어안는 수정. 재훈의 깁스한 팔을 살짝 어루만지며.

수정

보고 싶었어.

수정을 떼어내고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재훈.

수정

오빠 설마 여자 생겼어?

재훈

...

수정

잖아?

재훈

...

수정

차라리 잘됐네. 이걸로 똑같아졌으니까.

재훈

하...!

수정, 다시 재훈을 뒤쪽에서 끌어안는다.

수정

오빠 13년이야. 13년 동안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오빠 나만 바라봤잖아.

13년 내내 그랬던 것처럼 나 잊으려고 그 여자 만나는 거잖아.

울먹이기 시작하는 수정.

수정

나 이번에 깨달았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건 오빠라는 걸.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은 집착이고 미련이었다는 걸.

이번에는 재훈을 앞에서 끌어안는 수정.

재훈, 그런 수정을 떼어내지 않고 내버려 둔다.

재훈

너. 그렇게 가고 나서. 결혼식 날에 우리 부모님이 예식장 가셨던 거 모르지?
니네 집 식구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혹시 연락 다 안 갔을까봐
예식장에서 일일이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돌려보내셨어.

S#71. 예식장 / 낮 (과거회상)

예식장. 헛걸음한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부모님의 굵은 등을 바라보는 재훈.
축의금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 관수와 화환 정리를 돕고 있는 병철의 모습도 보인다.

S#72. 재훈의 집, 거실 / 밤

다시 재훈의 집. 수정과 대화 중인 재훈.

재훈

...잊지 못해서 그런 감상적인 이유로 니 흔적 둔 거 아니야.
다쳤으니까 아팠던 거뿐이지.

돌아선 재훈이 다시 청소를 시작하는데...

재훈

가. 조만간 여기 짝 수리하고 집도 다시 내놓을 거야.

수정

나 임신했어.

재훈, 돌아보면...

어느 새 눈물을 그친 수정이 담담하게 말한다.

수정

누구 애인지 모르겠어.

S#73. 주택가 / 새벽

도로에는 거의 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
인적 역시 드문 것으로 보아 아주 늦은 시간임을 알 수 있다.
택시가 도로가에 서면 그 안에서 선영이 내린다.
비틀비틀, 주택가 골목으로 진입하는 선영.

S#74. 현성의 집 앞 / 새벽

담배를 입에 물고 2층 단독 주택 앞에 선 선영이 초인종을 누른다.
잠시 뒤, 2층에서 소리가 나더니 메리야스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내다본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조금 벗겨졌다.

현성 부친
누굽니까?

선영이 깜짝 놀라서 얼른 담배를 버리고

선영
(입에서 담배연기가 풀풀) 현성 오빠...옛날 여친이요.

현성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중년의 여성도 뒤따라 나와 내다보는데 대문이 열린다.
현성이다.
말없이 앞장 서는 현성, 천천히 뒤따라가는 선영.

S#75. 놀이터 / 새벽

가로등 아래에서 선영과 현성.
술에 취한 것을 감추려하지만 티가 나는 선영.

선영
번호 바뀌었더라.
현성
...
선영
그 동안 어떻게 지냈어?
현성
결혼했어.
꽤 됐어. 애도 있고.

담배에 불을 붙이는 현성.

선영
좋아?
현성
...나는 니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길 찾아왔는지 모르겠다.
선영
아무 생각 안했어.
너무 생각만 하고 사는 거 같아서.
...오길 잘 한 거 같아.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키도 작고 못생긴데다가 목소리도 별로라서.

현성

...다시 연락했을 때 안 받은 건 너야.

선영

(헛웃음) 사람들이 그러더라. 너무 좋아하고 잘해주면 질린다고.

그런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다고.

자기 맘대로 되던 게 안 되니까 약이 오르는 거지.

현성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선영

그런데 그랬어?

현성

(발끈) 야. 벌써 5년 전 일이야.

그때 일 기억도 잘 안나.

프레임 인해서 현성의 따귀를 때리는 선영의 손.

현성도 한 대 치려는데 인기척이 나자 멈칫, 한 대 더 날리는 선영.

현성

야씨발. 진짜 미쳤냐?

선영

나는 너 같은 새끼들이 제일 역겨워.

하나도 안 솔직하면서 세상 솔직한 척,

끝까지 자기는 좋은 사람인 척, 쿨 한 척,

남의 감정은 우습게 알면서 지만 안 망가지려고 하지.

현성

...

선영

열 받아? 나도 열 받아.

좋은 사람을 좋아하면 되는데

그 당연한 걸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재훈을 떠올리는 선영.

선영이 돌아서 걸어간다.

현성, 이제 끝났나?하는데

선영

(핵) 나도 다른 남자 만났어. 어제도 존나 했어.

하는 동안 너는 생각도 안날 정도로 좋았어!

현성

...그래 축하한다.

핵, 다시 빠르게 걸어가는 선영.

선영
그년이랑 백년해로해라!
벽에 뚫칠하고 서로 닦아주고 냄새 맡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

재훈
그년이라고 하지 마.

선영
그럼 년이지 년이냐?? 더 늦기 전에 포경이나 좀 해!!! 냄새 좇았으니까!!!

동네가 찌렁찌렁 울리게 소리치고 떠나는 선영.

S#76. 선영의 집 / 낮

깔끔하게 청소된 선영의 집.
선영,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간다.

S#77. 부동산 / 낮

부동산에 들리는 선영.

선영
저기. 집을 좀 내놓을까 하는데요...

S#78. 길거리 A / 낮

담배와 숙취해소 음료를 산 재훈이 통화하며 편의점 밖으로 나오는데

재훈
네. 그럼 집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의 차 앞에 SUV 한 대가 정차하며 정수가 내린다.
정수를 보고 반응하는 재훈.

재훈
박정수. 야.
정수
김정수. 또 만났네.
재훈
잘 지냈냐?
정수

...

재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재훈, 힐끔 정수의 차를 봤다가 스티커를 떼어낸 흔적을 본다.

「아이가 타고 있어요!」에서 「아이고!」만 남았다.

재훈

너...?

정수

아무리 봐도 애들이 엄마, 아빠 안 닮았으니까,
사실 몰래 친자확인 검사를 해놨었는데 이틀 전에 결과 나왔어.
설마 했는데...

한숨을 푹 쉬는 정수.

정수

말이 되냐? 둘 다 내 애가 아니라. 심지어 그 둘도 아빠가 다르단다.

재훈

힘들었겠네.

정수

한 이틀 좇았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고.
그냥 확 다 죽여 버리고 나도 뒤져버릴까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몰랐던 거 같지도 않고.
그냥 나만 생각하기로 마음먹으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다.

재훈

기분 탓이야.

금방 또 좇아가지거든.

정수

...

재훈

비슷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대선배라도 된 것처럼
조언이랍시고 뻔한 소릴 해댈 거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너까지 싸잡아 한심하게 보겠지.
억울해도 소용없어.
다들 마음의 상처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정수

...

재훈

너무 애쓰지 말라고 병신아.

그때, 정수의 핸드폰이 울린다.

정수, 편의점 안으로 바빠 걸어 들어가며

정수

전화해라. (통화하며) 네. 부장님. 거의 다 왔습니다.

쓸쓸한 정수의 뒷모습.

재훈

번호 모른다니까...

S#79. 회사 앞 / 낮

재훈이 차를 세우고 담배를 태운다.

잠시 뒤 선영이 출근하기 위해 나타난다.

선영

안녕하세요? (지나치려는데)

재훈

...그 친구가 다시 나랑 만나고 싶대.

선영

축하드려요. 정말 잘됐네요.

선영이 돌아서는데

재훈

야.

선영, 쳐다본다.

재훈

같이 한잔 할래?

짧은 침묵이 흐르고.

선영

...그만 좀 징징대세요.

선영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혼자 남은 재훈.

페이드아웃.

S#80. 스튜디오 / 낮

거실에서 엄마 역할을 맡은 배우가 빨래를 탁 털며

엄마 배우

요즘 우리 아이가 공부에 푹 빠졌어요. 이게 다 오케이보이 덕분이에요!

엄마 배우, 화면 좌측으로 아웃하면 가려져 있던 후경의 아역 배우가 거실 탁자 위에서 신나게 책을 읽고 있다.

재훈

예. 컷입니다! 다음 컷 갈게요.

cut to

스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재훈이 콘티를 들여다본다.

경은이 핸드폰을 들고 슬쩍 다가와

경은

저기 팀장님. 대표님께 전화가 왔는데...

애니멀 (속닥) 콘돔... 아이디어 때문이에요.

재훈

그래서?

경은

지금쯤이면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안 찍을 거냐고...

재훈

촬영하는 거 안 보여? 지는 어디서 뭐하는데?

욕심만 키울게 아니라 회사를 키우고 싶으면 저라도 애들 붙들고

아이디어를 뽑든 영혼을 뽑든 해야 할 거 아냐??

S#81. 사무실, 회의실 / 낮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관수의 핸드폰은 스피커폰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

재훈(v)

3명이서 할 일을 1명한테 몰아놓고 다들 업무량에 치어서 맨날 야근인데. 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한 달을 못 버티고 계속 나가.....!

뚝, 전화가 끊어지고.

관수와 나머지 직원들이 빙 둘러 앉아 있다.

선영도 보인다.

관수

이 팀장 생각은 잘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또 의견 없어?

서로 눈치만 보는 직원들.

관수

오. 원래 이팀장이랑 애니멀 진행하기로 한 게 너라며.
이팀이 저러고 있는 동안 넌 뭘 하고 있었는데?

선영

...죄송합니다.

관수

다음 주 납품이야!!! 아직 아이디어도 없다는 게 말이 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관수.

관수

정신 똑바로들 차려. 무조건 이틀 내로 아이디어 내고 시나리오까지 완료해. 알겠어??

S#82. 사무실 / 밤

키보드 소리 타다탁타다탁.....

채팅 중인 선영과 직원들.

이 팀이 나간다고 하면 당장 큰일이니까 괜히 화풀이 하는 거야.

시간 없는 거 알면서 직원들 데리고 놀러간 건 생각 안하고. 알라딘 요술 램프인줄 알지.

너무 신경 쓰지마 선영씨.

선영이 괜찮다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문자를 입력하는데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채팅창이 뜬다.

이 팀장님이 이용당하는 거라니까요. 청계산에서도 그렇고 그날 노래방에서 둘만 사라진 것도 그렇고.

하긴 그런 부류들 있지. 남자 상사한테 꼬리쳐서 잇속 챙기는 여우같은 애들.

이 팀 파혼 물렸다면. 그럼 양다리야?

여기 아니야.

*맞아요. 오양 먼젓번 회사에서도 유부남 사수한테 꼬리쳤다가 잘렸던데요. 그쪽 바닥에서는 소문 짝
나서 작은 데로 온 거라던데. 인터넷에 올라온 글도 있어요.*

링크.

목소리(v)

(작은 목소리로) 거기 아니라고 등신아!

갑자기 키보드 소리가 싹 사라지는 사무실 안.

선영이 고개를 들면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관수가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려

선영을 쳐다본다.

S#83. 스튜디오 / 밤

아역 배우가 블루 스크린 앞에서 빈 머리 위를 쳐다보며 우와~ 우와! 우와아아! 감탄사를 연발한다.
테이크가 길어지자 경은이 재훈을 쳐다보면, 재훈은 모니터가 아닌 핸드폰 속 단톡방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은
(퍼뜩) 컷입니다! 컷이요!

S#84. 스튜디오, 야외 주차장 / 밤

주차장에서 열심히 뒷정리 중인 스텝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보인다.
경은이 사람들을 향해 소리친다.

경은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 하실 분들은 문자로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리로 오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재훈.
단톡방에 올라온 링크를 확인한다.
핸드폰 불빛이 묻어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재훈의 얼굴. 글을 찬찬히 읽는 재훈의 눈.
익명의 누군가가 올린 글.
댓글이 하나 눈에 띈다.
이거 제가 아는 사람들 애긴데요. 이 여자 자살했어요.

경은
(재훈에게 다가가며) 식사하실 거죠?

재훈
어. 그래야지. 고생 많았다.

경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 팀장님 믿어요.

재훈
그런 거 아냐...

경은
...네?

재훈
아니다. 밥 먹으러 가자.

S#85. 해장국집 / 밤

시끌벅적. 저마다 요즘 사는 이야기를 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취기가 오른 듯 두 눈을 느리게 깜빡이는 재훈.

영 집중을 하지 못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본다.

결심한 듯 어디론가 전화하는 재훈.

소리(v)

전원이 꺼져 있어...

cut to

재훈의 자리가 비어있다.

경은

이 팀장님 벌써 가셨어요?

스텝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그러셨는데요.

경은

언제요?

스텝

(시간 확인하고)...한 시간 전쯤? ...

경은

...

S#86. 사무실, 대표 방 / 밤

재훈이 관수와 독대중이다. 잔뜩 화가 난 재훈.

후경으로 야근 중인 직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관심들은 잔뜩 대표 방에 쏠려있다.

재훈

그렇다고 애를 왜 내보내? 사실 확인도 안됐고 옛날 일이라며.

관수

자기 발로 나간 거야. 나는 붙잡았지 애니멀 일정 때문에서라도.

자르고 싶다고 막 자를 수 있고 그런 거 아닌 거 알면서.

유리문 너머. 눈치 보는 다른 직원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재훈이 직원들을 향해 샷대질하며 소리친다.

재훈

야이씨 니들이 젔 나빠. 털면 먼지 안 나는 것들 하나도 없으면서

깨끗한 척, 고상한 척 남 얘기하느라 바빠 죽지 아주. 주둥이 한번 털어봐 오늘??

cut to

방음이 너무 잘돼서 대표 방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는다.

cut to

대표방. 다시 자리에 앉아 관수에게 손을 척 내미는 재훈.

재훈

내놔.

관수

뭘...

재훈

오선영 집 주소 달라고!

S#87. 선영의 집, 복도 / 새벽

끈질기게 이어지는 초인종 소리.

초인종을 누르는 남자의 손끝.

문 너머에서 쿵당탕탕 소리가 나더니 인터폰이 켜진다.

선영(v)

뭐야. 미쳤나봐 진(짜!)...

걸쇠를 건채로 문을 연 선영.

선영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쿵) 너 또 술 마셨니?

재훈

이것 좀 열어봐. 잠깐 얘기 좀 해.

선영

무슨 얘길 해. 이 시간에.

재훈

잠깐이면 돼.

선영

아 좀 가라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문이 꽁 닫히는데. 손을 짚은 재훈.

웅크리고 앉아 끄끄 앓는다.

선영

어떡해?! 괜찮아??

문이 닫혔다가 다시 열린다.

선영
내가 그냥 가라고 했잖아...

S#88. 선영의 집 / 새벽

재훈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텅 빈 원룸 안에 혼자서 술을 마신 흔적이 남아있다.
재훈이 선영을 쳐다보면 무안해하며 시선을 피하는데

재훈
왜 이러고 있어??
니가 이러면 인정하는 꼴 밖에 더 돼?
할 말 다하고 억울하면 못 참고 지고는 못 사는 거 아니었어?

cut to

소파에 앉은 선영. 서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재훈.

선영
사수라 매번 거절하기도 뭣하고 밥 몇 번 먹은 게 전부였는데...
와이프가 알게 되고 회사 뒤집어지니까 내가 먼저 꼬리를 쳤다더라.
그걸 와이프한테 알리고 인터넷에 글까지 올렸던 게 현성 오빠...
그때 남자친구였어.

재훈, 믿을 수 없다는 반응.

선영
연락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다른 남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난 거지.

재훈
그래서? 지금 그 새끼 감싸는 거냐?

선영
...

재훈
맞잖아. 복수하겠답시고 안받아줬다가 돌아갈 타이밍 놓치고
후회돼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
(기가 찬) 헤어지자고 말할 용기도 없어서 잠수 이별까지 해놓고
좋아했다는 여자를 그 따위로 인터넷에 써놓는 새끼를
뭐가 좋다고 못 잊어서 청승이야.
너 진짜 바보냐??

선영
등신.

갑자기 선영의 팔을 잡아끌고 집을 나가려하는 재훈.

선영
왜 이러는 건데?

재훈
우선 그 개새끼부터 만나고
전부다 사실대로 말하게 만들어야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선영
(저항하며) 억울하다 그런 적 없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해명했어.
그 인간 따라서 인터넷에 글도 올렸는데
재미가 없는지 내 건 퍼지지도 않았어.

재훈
...

선영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꽃뱀이라는 등
피해자인 척 한다는 등
신상은 신상대로 다 털리고
생각하지도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 취급을 받았어.

...

혹시 나중에 문제라도 될까봐 정신병원은 꿈도 못 꾀봤어.

선영을 잡고 있던 팔을 놓아주는 재훈.

선영
마음 같아서는 집에 쳐 박혀서 한 발자국도 나오기 싫었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고
씨발 어디가 어떻게 좋은 건지 1도 모르겠는데
남들은 좋은 경험 했다 생각하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뭔데?
감싸는 거냐고??
너야말로 판 놈이랑 똥구는 걸 니 두 눈으로 보고도
개랑 다시 만나고 싶든??? 변태야 뭐야 씨발.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는 방 안.
정적을 깨고 뱉는 선영의 한 마디.

선영

배고프다. 밥이나 먹자.

S#89. 김치찌개집 / 새벽

자리를 잡고 앉은 선영과 재훈.
종업원이 다가오면

종업원

주문하시겠어요?

선영

여기 김치찌개 두 개 주시고요.

이 친구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하나는 덜 맵게 좀 부탁드립니다.

주문을 받은 종업원이 떠나면

재훈

김치찌개 좋아한다고 말한 적 없어.

선영

...

재훈

매운 거 못 먹는다고 말한 적도 없어.

선영

있어.

재훈

기억 안 난다며.

선영

너도 기억 안 난다며.

재훈

야.

선영

직접 말한 게 아니면 다른 데서 들었나보지.

재훈

야.

선영

다른 사람이랑 헛갈렸어.

재훈

야!

종업원

네?

재훈

나 너 좋아해! 니가 너무 좋아!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안고 싶어. 너랑 또 섹스하고 싶다.

창피한 듯 고개를 숙인 선영.

선영

너 취했어 지금.

재훈

아니. 나 진짜 하나도 안 취했어.

선영

내일이면 기억 못 할 거야.

재훈

전부 다 기억해. 니가 포장마차에서 먼저 뽀뽀한 것도 기억하고
노래방 나와서 먼저 뽀뽀한 것도 기억해.

선영

목소리 좀 낮춰.

재훈

그래서 내가 키스한 것도 기억하고
자취 생활이 길어서 누가 옆에 있으면 잘 못 잔다 그래놓고
바로 코 골고 잔 것도 기억해. 너 그때 방구도 켜어.

선영

야!!!

재훈

OO동 OO 모텔 000호에서 두고 간 니 팬티 내가 가지고 있어!!!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게를 나가버리는 선영.

재훈

(쫓아나가며) 비너스!!! 살구색 레이스!!! 95호!!!!

S#90. 길거리 C / 새벽

빠른 걸음으로 앞서나가는 선영, 뒤쫓는 재훈.

재훈

왜 도망가는데?

선영

내가 언제? 니가 따라오는 거거든?

우뚝 멈춰선 선영. 재훈도 멈춰 선다.

선영

나 너 좋아한 적 없어.

그때 내 생각이 나서 불쌍해서 잘해줬던 거야.

모성애 같은 거라구.

너도 나 좋아해서 이러는 거 아니고.

재훈

씨발. 그럼 이건 부성애냐? 근친이야?

선영, 뒤돌아서 다시 빠르게 걷기 시작한다. 다시 뒤쫓는 재훈.

재훈

넌 맨날 그런 식이지? 어?

센 척은 혼자 다하면서 막상 일이 닳치면 내빼느라 바빠.

왜 그런 줄 알아? 책임감도 용기도 없거든.

그날 아침에 너 그렇게 나가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선영

뭐야 너 자는 척 한 거였니??

재훈

실눈 뜨고 다 보고 있었다 왜?!

선영

야. 너나 잘해. 니 약혼녀는 니가 지금 여기 와서 나한테 이려고 있는 거 아니?

나는 내 남자가 뒤에서 다른 여자한테 이려고 있는 거 알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워서 인터넷이고 뭐고 사방팔방에

그 두 연놈들 신상 다 까발리고 평생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거야 알아?

갑자기 우뚝 멈춰 서서 핸드폰을 꺼내는 재훈.

재훈

야. 좋다. 그런 방법이 있었네. 그렇게 하자.

선영

너 포라이니 진짜...?!

선영, 뒤돌아 재훈에게 뛰어간다.

선영이 바짝 다가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다시 속도를 늦추는 재훈.

선영

핸드폰 내놔.

재훈

내가 왜?

선영

술 깨면 줄게. 이리 줘.

재훈

싫어.

선영

맨 정신엔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내 놓으라고 진짜!!!

재훈의 팔을 잡는 데에 성공한 선영. 껴안으며 늘어진다. 그러나 다시 놓치면서 바닥에 나자빠지는 선영. 팔과 다리가 심하게 까지고 뒤집어 져서 피가 흥건하다.
낮게 신음하며 울먹이는 선영.

재훈
(다가가며) 괜찮아? 어디 좀 봐...

재훈이 상처를 살피러 다가오자마자 핸드폰을 뺏으려하는 선영.
반사적으로 피하는 재훈.
갑자기 재훈에게 달려들어서 키스하는 선영.
선영이 다시 핸드폰을 노리자 그 와중에도 핸드폰을 쥔 손을 뒤로 빼는 재훈.
결국 선영이 재훈의 급소를 발로 차버린다.
재훈이 떨어뜨린 핸드폰을 선영이 짹싸게 줍는다.
다시 뺏겼다고 달려드는 재훈을 피해 핸드폰을 멀리 던져버리는 선영.
공교롭게도 가게 쇼윈도에 명중하면서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세콰이 작동한다.
멍하게 부서진 가게 창문을 바라보는 재훈.
소란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한다.
그런 두 사람을 촬영하고 구경하는 사람들.
선영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서 정신이 없는 눈치.
재훈, 멍하게 서 있는 선영의 핸드폰을 뺏어 플래시까지 켜서 역으로 사람들을 촬영하기 시작한다.
당황해서 피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고성과 욕설이 오고간다.

cut to
저 멀리,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
더 이상 구경꾼은 없고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선영과 재훈.
재훈이 선영에게 핸드폰을 내밀면 눈을 마주치지 않는 선영.
점점 가까워지던 사이렌 소리가 화면을 가득 채운다.

S#91. 사무실 / 낮

재훈, 핸드폰을 확인한다.
선영에게 보내놓은 문자.
잘 들어갔어?
숫자 1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톡방이 갑자기 뜨고.
병철이 야동을 올렸다.
제 핸드폰이 해킹을 당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하는 병철의 문자 이후 바로 단톡방을 나가는 선영.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다가오는 병철.

병철
(다 들리게) 청첩장인 줄 알고 놀렸는데. 악성 프로그램이 깔린 모양이네.
수법이 점점 교묘해져서.

재훈
...

병철
이따가 회식 오는 거지?

재훈
무슨 회식?

병철
오선영씨 송별회라던데.

재훈
온대?

병철
오겠냐.

재훈, 다시 핸드폰을 보지만 숫자 1은 사라지지 않았다.

S#92. 곱창집 / 밤

회식이 한창 이뤄지고 있는 술자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굳은 표정으로 술만 마시는 재훈, 핸드폰이 울려서 확인하면 수정에게서 문자가 와 있다.
오늘 늦어?
답장하지 않고 선영의 문자를 확인하는 재훈.
회식 장소와 함께 오고 싶으면 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봤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숫자 1들.
그 위로, 여러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곱창집 문이 열리고 테이블로 다가오는 하이힐.

목소리1(v)
술직히 팀장님도 웃겨요.
결국엔 조강지처라지만 둘이 잠도 잔 거 같던데.
목소리2(v)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오선영만 바보 된 건 사실이지.
목소리1(v)
끼리끼리 만났죠 뭐.
목소리3(v)
야야. 듣겠다.

스스로 술잔을 채우고 마시려다가 그냥 바닥에 확 털어버리는 재훈.

가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눈앞에 등장한 선영.
좌중, 순간적으로 얼어붙는데 이미 취해있는 듯 휘청휘청하는 선영.

선영

아니. 근처에서 마시다가 이대로는 조금 아쉬워요.
맨 정신에 못한 얘기도 좀 하고 싶고.
회식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선뜻 자기네 쪽으로 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이 엉거주춤 인사만 건네던 중 선영이 먼저 미영, 경은, 윤주가 앉아있던 테이블로 걸어간다.

선영

저. 여기 좀 앉을게요.

미영

앉아앉아.

경은

(손 뻗으며) 윤주씨 가방을...

가방이 놓여있는 것을 무시하고 깔고 앉는 선영.

윤주

...

선영

죄송해요~

(다른 사람들 쳐다보며) 제가 좀 많이 취해서.

가방을 깔고 앉은 채로 다리를 꼰다. 빈 잔을 들고 윤주에게 내밀며

선영

한잔 줄래?

윤주

네? ...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재훈.

윤주가 잔을 채워주면 바로 윤주의 얼굴에 술을 뿌리는 선영.

다들 화들짝 놀라서 몇 사람은 반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선영

너 나 알아? 나랑 친해?

왜 그랬어?

윤주

(눈 뜨려고 애쓰며) 아 진짜. 지금 이게 무슨.

선영

너 저쪽 회사 사람들에게 페메 보내서 나에 대해 엄청 묻고 다녔다며.
유부남 그 새끼가 사실 전적이 있어서 일방적인 얘기만 나오진 않았을 텐데
사람들한테 전할 땐 그것만 쏙 빼놓고 얘기한 이유가 뭐야?

윤주

(더듬더듬) ...그게 어떻게 된 거냐하면...

선영

너 나한테 무슨 감정 있었니?

윤주

그, 그런 적 없어요!

선영

(표정 일그러지며) 그럼 더 그래선 안 되는 거 아냐?

미영

(끼어들며) 선영씨. 왜 그러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러는 건 경우가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 생각도 해줘야지.

선영

몰래하려다 들키는 건 경우가 있는 거구요?

미영

...

선영

아 죄송해요. 제가 진짜 지금 너무 많이 취해서요.
근데 과장님.

대학 때부터 대표님한테 첫눈에 반해서
여자친구 있는 거 알면서도 엄청 쫓아다니셨다면서요.
대표님 욕을 과장님이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던데.
알고 보면 결혼도 그래서 안하는 거라고.
에~이. 설마. 아니죠?

정적.

미영

누가 그래. 아니야. 그게 무슨...

미영, 관수를 쳐다보고 관수는 병철을 쳐다본다. 병철은 강 기사를 쳐다보고 강 기사는 윤주를 쳐다보
고 윤주는 경은을 쳐다보는데 경은이 다시 미영을 쳐다본다.

관수

야씨. 최병철 너...

병철

뭐, 뭐가? 뭐가뭐가?

미영

(벌떡 일어나서 손사래 치며)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재훈과 눈이 마주치지만 고개를 돌리는 선영.

선영

게이이니, 마누라한테 맞고 산다느니,
저러니까 결혼을 못한다는 둥 고자 아니냐는 둥,
띠동갑도 넘은 어린 애랑 만난다고 전자발찌 별명까지 붙이고...
뒤에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잖아요.
진심으로 궁금한데 정말로 이런 게 재밌어요?
그 사람한테는 상처잖아요.
내가 너무 진지한가? 오글거려요?

더 이상 선영에게 집중할 수 없는 직원들, 서로를 미친 듯이 쳐다본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까지 힐끔, 이곳 상황을 살피기 시작하고.

강 기사

(옆 사람에게) 게이도 있어요?

웅성웅성 아수라장이 되는 곱창집 안.
사람들 틈 사이로 선영을 쳐다보는 재훈.
선영, 원샷하고 바로 물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가 재훈과 눈이 마주친다.
한결 편해진 표정으로 서로를 잠시 바라보다가
사람들을 뒤로한 채 유유히 곱창집을 빠져나가는 선영.

S#93. 재훈의 집, 거실 / 낮

이삿짐이 빠지고 있다.

자막, 3개월 뒤

재훈, 동물 이동장을 살피는데 비어있다.
지나가던 이삿짐센터 직원을 붙잡은 재훈.

재훈

여기 고양이 못 보셨나요?

직원

고양이요? 못 본 거 같은데...

안방으로 향하는 재훈, 어느 새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는 안방 문.
재훈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직 정리가 시작되지 않은 안방에서 수정이 고양이를 안고 있다.

S#94. 재훈의 집, 안방 / 낮

안방 문이 닫히고.

수정

이제 좀 기분이 좀 후련해?

재훈

...

수정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날짜가 안 맞으니까.

재훈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수정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도 그래야만 하고.

재훈

수정아. 나는 니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

수정

...

기분 좋은 햇살을 받으며 수정의 품에서 잠이 든 고양이.

수정

나도 오빠가 잘 살았으면 좋겠네.

S#95. 선영의 집 / 낮

예전에 살던 곳과 구조며 가구가 다르다.

선영의 엄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 과일을 손질하는 선영.

선영모친

그래서 결혼하재? 넌 뭐라 그랬는데.

선영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

선영모친

애는. 뭘 튕기고 그래.

요즘 애들 밀당이니 뭐니 하는데 가뜩이나 수저에도 금은동 붙고

갑이니 을이니 이기려고만 드는 세상에...

연애에서까지 뭐하는 짓들인지 몰라.

선영

엄마도 아빠 만날 때 그렇게 튕겼다며. 아빠가 그러더라.

좋은 거 다 티내면서 퇴짜는 또 놓는데 연락 없으면 화내고.

이런 정신 사나운 여자랑 결혼해도 될까 심각하게 고민했다던데?

선영모친

야. 난 참에 니 아빠 진짜로 싫어서 그런 거야.
하두 끈질기니까 정 붙어서 그런 거지. 아무튼 적당히 하고 결혼 한다 해.
요즘 남자들이 포기가 얼마나 빠른데.

TV소리(v)

스파르타!!!

소리에 반응하고 TV로 시선을 보내는 선영.
애니멀 콘돔 광고인데 영화 300을 패러디한 것이다.

선영

아니야.

선영모친

뭐?

선영

팅긴 거 아니라고...

선영모친

그럼 왜 그랬는데?

애니멀 콘돔 광고 화면.

선영

무서워서... 갑자기 너무 좋아하게 돼버려서...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영모친

어머. 애. 너 우니??

선영,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엉엉 운다.

S#96. 호프집 / 밤

시끌벅직한 호프 집 풍경.
비주얼라이징의 회식 자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관수가 유독 기분이 좋아 보인다.
꽃미남 신입사원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
취기가 오른 듯 두 눈을 느리게 깜빡이는 재훈.
영 집중을 하지 못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본다.
재훈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문자.
여전히 숫자 1이 사라지지 않은 선영과의 카톡창.

뭘해?

썼다가 지우고.

대희

이번에 기획팀에 들어오게 된 김대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

여자 친구 있어요?

대희

없습니다.

윤주

오~

경은

마지막 연애는?

노골적인 표정을 짓지는 않지만 들뜬 여자직원들을 쳐다보는 남자 직원들.

재훈의 핸드폰 화면.

자니? 입력하고 다시 지우는 재훈.

cut to

비어있는 재훈의 자리.

S#97. 길거리 D / 밤

휘청휘청, 만취한 재훈이 길을 건다가 도로가에서 옥수수를 팔고 있는 할머니를 본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재훈.

재훈

이 노인네가 진짜. 말 참 안 듣네.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니까.
위험해요. 큰일 나.

할머니

총각 오랜만이유. 하도 안 보여서 사고라도 난 줄 알았지 뭐야. 걱정했어.

재훈

남은 거 제가 다 살 테니까 어서 집에 들어가서 쉬세요. 노인네 골병 나봐.
그게 더 자식들 애먹이는 거 몰라요?

할머니

고맙네. 고마워.

돈을 건네면 주섬주섬 옥수수를 챙기는 할머니.

재훈의 핸드폰이 울린다. 휘청휘청, 문자를 확인하는 재훈.

뭘해?

자니?

재훈
할머니. 오늘은 제가 산 셈 칠 테니까 옥수수는 친구 분들이랑 나눠 드세요.
할머니
어?

후다닥 뛰어가는 재훈.
달려가는 재훈의 뒤에다가 소리치는 할머니.

할머니
밥 굵지 말고 다녀. 약주도 좀 줄이고.

S#98. 포장마차 / 밤

S#29과 동일한 포장마차.
포장마차 안으로 뛰어든 재훈이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린다.
숨을 헐떡이는 재훈. 누군가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가 자리에 앉는다.
맞은편에 앉아 있는 선영.

선영
취했니?
재훈
아니. 지금 딱 좋은데?
선영
...게임 하나 할래?

무엇인가를 읽는 재훈의 눈동자.
싱긋 웃는 선영.
재훈의 얼굴 위로 희미하게 번지는 미소.
마주 보는 두 사람의 모습.
블랙.

재훈(v)
나도. 보고 싶었어.

크레딧.

-THE END-